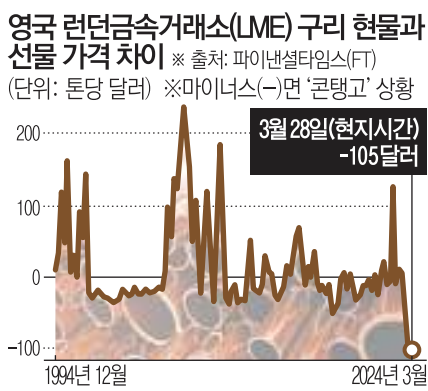


구리, 사상 최대 '슈퍼 콘탱고'... 글로벌 공급망 초비상

현물·선물 가격 차이 105달러
중 경제 부진 전망에 수요 급감
광산업체·제련소 생산량 감축
IB "수개월 내 가격 치솟을 것"

중국의 경제 부진으로 인해 구리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콘탱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발 원자재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미래에 구리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3개월물 가격은 톤당 8832달러(약1190만원)에 거래됐다. 이



는 현물 가격보다 105달러 비싼 수준으로, 격차는 블룸버그통신이 해당 통계를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지면서 슈퍼 콘탱고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슈퍼 콘탱고는 지금 당장의 불안에 수요가 바로 급격히 줄어들고 그만큼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 현물을 저장할

슈퍼 콘탱고
(Super Contango)

콘탱고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거나 결제 월이 현재로부터 멀수록 선물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선물에는 만기까지 발생하는 현물보유비용이 포함돼 그 가격이 현물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땐 '슈퍼 콘탱고'라고 부른다.

재고 공간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선물 계약에 반영되는 현물저장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리시장에서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미래 더 심해져 가격이 앞으로 몇 개월 뒤 훨씬 더 큰 폭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슈퍼 콘탱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달 초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내놓은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기대에 못 미치자 트레이더들은 구리에 대한 중국 수요 전망치를 하향했다. 중국 정선선물의 장지에 푸 선임 애널리스트는 "수요 회복이 예상만큼 강하지 않다"며 "현재로선 매수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맥쿼리는 올해 중국 구리 수요 증가율이 지난해 6.7%에서 3.9%로 둔화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부진한 중국 수요 전망에 최근 글로벌 광산업체들이 구리생산량 감축을 본격화했다. 이들은 중국 경제 활동이 부진한 탓에 광산 채굴 규모를 줄였다. 원자재를 급속으로 정제하는 구리제련소들도 조달되

는 원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제련소들은 그동안의 치열한 경쟁으로 적자가 계속되자 지난달 중순 공동 감산에 합의했다. 그 여파에 지난달 초 구리 가격이 톤당 90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향후 수개월 내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속적인 공급발 충격으로 인해 구리 가격은 연말까지 톤당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광산의 채굴 중단이 늘면서 70만 톤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정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며 "3분기까지 구리 가격은 톤당 1만20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대영 기자 kodae0@

경영진과 연봉 격차 최고 30배 상대적 박탈감에 우는 '건설맨'

스페셜 리포트

'건설맨'들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연봉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 울상을 짓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영업이익 증가율 대비 낮은 연봉 인상률로, 업계 내부에선 최고 경영진과 직원 간 연봉 차이가 최대 30배가량 발생하는 등 타 업종 대비 큰 임금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3면

건설사 영업의 증가율 및 평균 임금 인상률 (단위: %, 2021년 기준)

기업	영업의 증가율	임금 인상률
삼성물산	40	13
현대건설	37	14.1
대우건설	32	2.4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실적 대비 임금 인상률 낮아
타 업종보다 임금차 더 벌어져
호황기 때에도 연봉 늘지 않아

3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건설사의 평직원 연봉 인상률은 호황기에도 크게 늘지 않았다. 반면 이들 건설사의 주요 경영진은 직원 연봉의 2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20대 그룹 소속 상장사 162곳을 대상으로 임원과 직원 간 평균 연봉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11배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의 재계 순위가 주요 대기업 계열사 대비 낮은 것을 고려하면 건설사에서 임원과 직원 간

의 연봉 격차가 큰 것은 직원들의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건설사 경영진의 연봉은 고공행진을 기록하는데 반해 평직원의 연봉 상승률은 저조하다. 재계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중 직원 연봉이 평균 1억 원을 넘는 곳은 48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새롭게 '억대 연봉' 직장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는 대우건설(1억 원) 한 곳에 그친다.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 기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을 포함해 삼성물산(1억3600만 원), 현대건설(1억500만 원), GS건설(1억400만 원) 등 소수다. 과거 고(高)연봉 직장으로 불렸던 건설업계의 옛 위상을 유지한 곳은 일부에 불과한 셈이다.

또한 건설업계의 직원 연봉 인상률은 영업이익의 증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사상 최대의 분양 시장 호황으로 건설업이 개선했던 당시에도 건설업계의 평균 임금은 영업이익 상승분에 비해 오르지 못했다. 2021년 당시 임금 인상률은 삼성물산 13%, 현대건설 14.1%, 대우건설 2.4% 등으로 2021년 영업의 증가율인 30~40%에 한참 못 미쳤다.

이후 최근까지도 임금 인상 폭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전년 대비 각각 8.8%와 4.0%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원과 일반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지속하면 결국 직원 사기 저하와 조직 문화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전보규 기자 jbk@

의대 지원해 볼까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로 바수도권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3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첫 의대 입시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신태현 기자 holjjak@

'섬유의 거인' 조석래 명예회장 가는 길... 각계 추모 발길

〈효성그룹〉

이명박·이재용·김진표 등 조문
"경제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

지난달 29일 별세한 '섬유의 거인' 조석래(사진) 효성그룹 명예회장 장례식에 각계 추모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35년간 효성을 이끌었던 고인은 경영뿐 아니라 한국 경제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해 재계에서 큰 존경을 받아왔다.

31일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이틀째 정·재계를 비롯한 각계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5면

이날 오전에는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부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 경제계와 김진표 국회의원,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조문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경제 모임 등에서 가끔 뵈었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분이셨다"며 "저희 아버지(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오래 하셨는데 (고인 역시) 전경련 회장을 하신 재계 원로"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당시 한미경제회의 의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과 인연을 얘기하며 "그때 우리 경제가 참 어려웠는데 미국이나 일본 경제계와 잘 소통할 수 있었던 분이 많아 도와 주셨다"고 회고했다.

오후에는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구광

모 LG그룹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다. 특히 고인의 친동생인 조양래 한국엔컴퍼니 명예회장과 조카인 조현범 회장은 이틀째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다.

고인과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경련 회장을 하시면서 기업 투자 일으키고 많은 일 하셨다"고 말했다. 이전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빈소에서 약 30분간 머물렀다.

전날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빈소를 찾았다.

장례는 효성그룹장(5일장)으로 치러진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가 명예장례위원장을 맡는다. 발인은 2일 오전 7시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북극한파·사막폭염 ‘담금질’…‘올해의 車’ 키우는 인큐베이터

기온 35도. 머리 위에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 후덥지근한 열기에 금세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건조하고 세찬 바람이 거대한 트럭의 앞창을 때린다. 마치 미국의 사막 위에 펼쳐진 도로를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현대차그룹 남양기술연구소의 ‘상용환경풍동실’이다.

상용환경풍동실에서는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의 유동 가시화 시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가스를 분사시켜 차량 주변의 공기 흐름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풍동실 천장과 측면 설치된 태양광 장비가 실제 태양처럼 내부를 뜨겁게 달궜다. 3.3m의 대형 팬은 시속 120km에 달하는 기류를 만들어 실제 주행 조건과 같은 환경을 만들었다.

현대차·기아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남양기술연구소의 전동화 차량 개발 핵심 연구시설을 공개했다. 1995년 출범한 종합 기술연구소로 신차와 신기술 개발은 물론 디자인, 설계, 시험, 평가 등 기반 연구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승용·상용 등 전 차종에 대한 연구개발을 책임지는 곳이다.

최근에는 전동화 전환에 발맞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개발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 EV9 등

르포
현대차그룹 남양기술연구소

세계 유일 ‘상용환경풍동실’
냉각·열해·주행성능 등 테스트
전기차 심장 ‘동력계 시험실’
차세대 소재 ‘배터리 분석실’
현대차·기아 ‘No.1 R&D 산실’

상용환경풍동실에서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유동 가시화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 사상식을 휩쓸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가 모두 이곳에서 탄생했다.

가장 먼저 찾은 상용환경풍동실은 상용차의 주행 환경을 테스트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내연기관, 전기차, 수소차 등 모든 종류의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전 세계에서 유일한 상용환경시험동이다. 시험 공간은 길이 20m, 너비 10m, 높이 6.6m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냉각, 열해, 연비, 냉시동, 히터·에어컨, 충·방전, 동력, 모드 주행, 배기가스 인증 등 실차 주행 성능시험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실내 온도를

영하 40도~영상 60도까지, 습도를 5~95%까지 조절할 수 있어 세계 곳곳의 날씨를 물론 극한 환경까지 재현할 수 있다.

이강웅 상용연비운전성시험팀 책임연구원은 “대기업의 실차 시험실로서는 처음으로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며 “국내 정부 부처와 학계, 자동차 업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수많은 기업과 정부 기관이 연구와 비즈니스 협업을 위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심장을 개발하는 ‘전기차 동력계 시험실’은 전기차 핵심 구동계인 모터와 인버터의 성능을 사전 개발하고 실

차 효율을 평가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실도로에서 이뤄지는 주행테스트와는 달리 실내 시험 공간 내에서 가혹한 테스트를 반복해서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모사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 전기차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광호철 전동화구동시험3팀 책임연구원은 “모터 단품 시험부터 차량 양산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동력계 시험을 하고 있다”며 “동력계 장비의 개수에 따라 크게 1축과 2축, 그리고 4축 동력계 시험실로 나뉘어 운영된다”고 설

명했다.

4축 동력계 시험실에서는 아이오닉5의 구동 시험이 진행됐다. 운전석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기어와 액셀,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고 있었다. 연구원이 장비를 가동하자 아이오닉5 차량 구동축에 연결된 장비가 돌아가며 차속에 따른 토크, 모터 온도, 소음·진동(NVH) 파형 등이 그래프로 나타났다. 전기차 동력계 시험실은 현대차그룹의 고성능 전기차 개발에도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아이오닉 5 N이 도달할 수 있는 시속 260km의 초고속 시험 등도 이곳에서 진행된다.

이어 방문한 기초소재연구센터 소속 ‘배터리 분석실’은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핵심 연구시설이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셀의 성능, 내구성, 안정성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며 “전기차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소재 단위까지 연구하는 것처럼 미세한 격자를 만들기 위한 현대차·기아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강문정 기자 kangmj@

전기차도 5단계 ‘연비등급제’ 실시… 아이오닉6 ‘1등급’

정부, 4월부터 세계 첫 등급제 시행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내 시판 중인 278개 모델의 모든 전기차는 5단계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 모델에만 적용했으나, 이제 기존 전기차 모델도 에너지효율 등급제 대상이 됐다.

전기차 등급제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적은 전기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고효율 전기차를 만드는 것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전기 효율이 좋은 전기차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1등급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PE), 아이오닉6 기본형 RWD 18인치,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RWD 21년 출시, 아이오닉6 항속형 RWD 18인치, 스마트솔루션즈 SMART EV Z,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RWD(2019년 출시) 등 6개다.

이밖에 2등급이 54개 모델(19.4%), 3등급이 73개 모델(26.3%), 4등급이 83개 모

델(29.8%), 5등급이 62개 모델(22.3%) 등이었다. 효율이 가장 우수한 1등급 차량은 1kWh당 5.8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2~5등급은 각각 5.7~5.0km, 4.9~4.2km, 4.1~3.4km, 3.3km 이하를 주행할 수 있다.

연평균 주행거리 1만3323km, 완속 충전 요금 364.5원/kWh를 기준으로 1등급과 5등급 차량의 연간 충전 요금은 각각 78만 원과 162만 원으로 약 84만 원의 차이가 난다.

산업부는 “1등급 전기차를 타면 5등급

전기차를 타는 것보다 매해 전기를 2292 kWh 아끼게 된다”며 “이는 3년간 여름(연중 4개월간 하루 8시간씩 사용 기준)에 에어컨을 쓰는 것과 같은 양의 전기”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고효율 전기차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시장 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부 고

조석래 (趙錫來) 효성그룹 명예회장께서
2024년 3월 29일 별세 하셨습니다.

장례는 고인의 업적과 유지를 기리기 위해 회사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화 및 부의는 정중히 사양하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빈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
- 장지 : 경기도 선영

- 발인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7시
- 연락처 : 02-2227-7550

효성그룹

서희건설 수년째 30배차… DL건설은 2.6배차 불과

〈회장-직원 간〉

〈전문경영인-직원 간〉

건설사 임직원 임금 격차 심화

정몽열·허창수, 직원 20배 이상
퇴직금 포함 땀 금호건설 39배
태영건설 36배로 격차 가장 커
“오너일가 고액 연봉, 비판 소지”

건설사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최대 30배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 연봉의 20배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31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 중 사업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는 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보수를 살펴본 결과, 임원 최고보수와 직원 평균보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금호건설이었다.

금호건설은 서재환 고문이 직원 평균 연봉(7771만 원)보다 39.3배 많은 30억 5500만 원을 받았다. 다음은 태영건설로 이재규 부회장이 29억 원을 받아 직원의 35.8배에 달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20억 원가량의 퇴직금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10배 안팎으로 낮아진다.

퇴직금을 받지 않은 임원 중 직원과의 연봉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다. 이 회장은 상여금 없이 급여로만 총 23억 원을 수령했다. 직원 평균인 7600만 원의 30.3배다. 2022년도 이 회장과 직원 간 차이는 31.1배였다. 격차가 소폭 줄어든 것은 이 회장의 연봉이 23억 원으로 같았지만, 직원 평균 연봉이 200만 원 오른 영향이다. 이 회장의 보수

는 전체 등기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중에서 45%가량을 차지한다.

정몽열 KCC건설 회장은 직원 평균보다 26배 많은 보수로 이 회장의 뒤를 이었다. 정 회장은 23억 2458만 원, 직원들은 8946만 원을 받았다. 2022년은 각각 19억 8140만 원, 7705만 원으로 25.7배였다. 정 회장의 지난해 보수 중 급여가 20억 8480만 원이었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가량은 성과급과 명절 선물비 등이었다. 지난해 KCC건설 등기이사 보수 가운데 80% 정도를 정 회장이 가져갔다.

허창수 GS건설 회장은 직원의 24배인 24억 94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근소한 차이로 정 회장의 바로 뒷줄에 섰다. 허 회장의 보수는 모두 급여다. 등기이사 총 보수에서 허 회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다. 2022년에는 급여 24억 1000만 원과 상여 37억 1300만 원을 포함해 총 61억 2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직원 연봉의 60배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은 직원들보다 19.3배 많은 14억 4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등기이사 보수총액 8억 45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최 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다. 이들은 해당 기업의 오너 또는 그 일가란 공통점이 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정도 제각각이라 오너 일가인 임원이 직원보다 몇 배의 연봉을 받는 게 적정한지를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전문경영인보다 유난히 많은 보수를 받거나 임원 보수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운영준 현대건설 사장(15.8배)과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14.5배)이 직원들과 비교해 보수가 눈에 띄게 많았다. 윤 사장은 급여 10억여 원과 상여 6억 5000만 원가량을 포함해 총 16억 6100만 원을 받았다. 오 사장은 급여 6억 5200만 원, 상여 12억 1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1억 2300만 원 등 총 19억 7600만 원을 수령했다.

반대로 HDC현대산업개발과 DL건설, 계룡건설산업은 연봉 격차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세 곳의 평균 연봉은 7700만~8000만 원이고 모두 5억 원 이상 받은 임원이 없어 최대 격차는 6.5배 이하로 추정된다. 직원 대비 등기이사 평균 보수는 HDC현대산업개발 5.4배, DL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은 각각 2.6배, 2.9배다. 대우건설(6.8배)과 동부건설(6.6배)도 최고 연봉 임원과 직원의 보수 차이가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전보규 기자 jbk@

2023년 주요 건설사 임직원 보수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업체명	최고 보수 임원			직원 평균 보수(원)	임원·직원 보수차(배)
	이름	직위	보수 총액		
삼성물산	오세철	사장	19억7600만	1억3600만	14.5
현대건설	운영준	사장	16억6100만	1억500만	15.8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	6억7600만	1억	6.8
GS건설	허창수	회장	24억9400만	1억400만	24.0
DL이앤씨	유재호	본부장	10억8100만	9000만	12.0
한화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	7억7600만	9000만	8.6
태영건설	이재규	부회장	29억	8100만	35.8
코오롱글로벌	윤창운	부회장	10억8500만	6600만	16.4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23억	7600만	30.3
금호건설	서재환	상임고문	30억5500만	7771만	39.3
동부건설	허상희	부회장	5억100만	7600만	6.6
아이에스동서	권민석	대표이사	10억100만	7800만	12.8
KCC건설	정몽열	회장	23억2458만	8946만	26.0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14억4700만	7500만	19.3
HLD&I한라	정몽원	회장	10억8460만	8384만	12.9



타업종 역대연봉 쏟아지는데… 중견건설사들, 뒤늦은 달래기

올 5% 인상 약속…일각 “어려울 것”
4년전 대비 한자릿수 인상도 많아

과거 건설사는 고연봉 직장 대명사였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정보 기술(IT) 업계에도 밀리는 모양새다. 다른 업종은 정책 산업으로 육성되고, 글로벌 호황기를 맞아 급성장하면서 ‘역대 연봉’ 기업이 쏟아진 것과 정반대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 등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4년 전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증가율을 비교하면 연봉 상승률이 훨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대비 한 자릿수 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회사도 많았다. 다른 업종의 대기업들이 최근 수년 동안 연봉을 파격적으로 높인 것과 다른 움직임이다.

이날 기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펴낸 대형건설사 중 2020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율은 삼성물산이 전년 대비 235%로 가장 높았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영업이익 2조 8702억 원(2020년 8571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7854억 원(54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상승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625억 원(5583억 원)으로 이 기간 19% 상승했다.

반면 2020년 대비 지난해 임직원 1인당 평균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삼성물산의 36%(전년 대비) 수준으로 집

계됐다. 이어서 현대건설(24%), 대우건설(22%) 순이었다. 삼성물산은 영업이익 증가율의 6분의 1, 현대건설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평균 임금 기준으로 4년 전 대비 한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곳은 GS건설(9%), DL이앤씨(6%), HDC현대산업개발(1%) 등이다.

이렇듯 건설업계의 저조한 임금 인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건설 업황 악화까지 겹치자 건설업계 내부에선 탈(脫) 건설 조짐까지 확산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들은 이 같은 직원 이탈 우려가 커지자 올해 임금 협상에서 일찌감치 ‘연봉 5% 인상’을 약속하는 등 임금 수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핵심 인력들이 타 업종으로 빠져나가면, 정작 경기 반등 때 ‘노를 저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높게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수년간 건설 업계가 낮은 임금 인상률을 유지해 온 만큼 올해 ‘5% 이상’ 임금을 높이는 건설사는 소수에 그칠 것이란 자조론도 만만찮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견사와 달리 대형사는 임금 비중이 커 대폭 인상이 쉽지 않고, 앞서 경기가 좋을 때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매년 그랬듯 올해도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짹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시험대상] 성인 여성 30명 [시험기관] (주)글로벌리얼연구소]

〈삼성전자 주가〉 〈SK하이닉스 주가〉

“8층·18층 탈출 성공

#2021년 1월 11일, 삼성전자 주가
가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9만1000원. 장중에는
9만6800원까지 오르며 ‘10만전
자’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증시 ‘큰형
님’ 삼성전자의 급등에 코스피도 날아
올랐다. 2021년 초 2900선에 머무르
던 코스피지수는 3000선을 훌쩍 넘겼
다.

2021년 초 증시 랠리를 연상케 하는
상승장이 돌아왔다. 연초 2600선에 머
무르던 코스피지수는 약 2년 만에
2700선까지 오르며 올해 3000선 돌파
를 논하는 증권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랠리도 역시 반도체주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는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18
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
했다.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8만2400원, SK하이닉스는 18만
3000원이다.

◇외인이 짚한 반도체주…2분기 기
강 잡는다= 2분기 반도체주는 2021년
증시 랠리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을까.
앞서 1분기에는 외국인의 반도체 대장
주 매수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 외국
인 투자자는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를 각각 5조5025억 원, 1조
7556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순매
수 상위 1위와 3위 규모다.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순매수세의 17%가 늘었고,
SK하이닉스는 482%가량 늘어났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재도전

外人, 반도체 대장주 매수 러시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 회복
코스피, 2년 만에 2700선 터치
“2분기부터 가격·매출 반등할 것”

이를 중심으로 증권가는 반도체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삼성
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사
업 경쟁력을 높이려 하면서 투자매력
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증권사 17곳이 내
놓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평균 9만
6882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곳은 목
표주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기
도 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의 평
균 목표주가는 20만550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2만 원 넘게 높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
기부터 레거시(범용) 메모리 수요 역
시 확대되며 가격(P)과 매출(Q) 모두
반등하는 양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
질 것”이라며 “AI 산업 확장 과정에서
HBM의 높은 수익 기여도가 중기적으
로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
련 경쟁력에서 앞서있는 SK하이닉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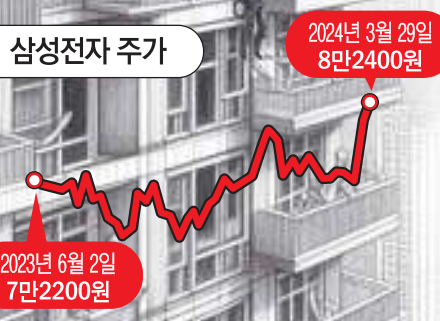
코스피 지수



SK하이닉스 주가



삼성전자 주가



코스피, 이륙하라 오버”

하이닉스 ‘20만닉스’ 첫 도전

전년比 순매수세 482% ↑
사상 첫 ‘1株=18만원’ 돌파
‘AI 붐’에 반도체株 낙수효과
“관련 상장 기업 동반상승 점쳐”

의 사이클 주도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올투자증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 증권사 중 가장 높은
목표주가(23만6000원)를 제시했다.

두 반도체 대장주 외에도 반도체주
전망은 낙관적이다. 이미 KRX 반도체
톱(Top) 15지수는 1분기에만
21.72% 오르며 테마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해당 지수의 구성
종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
에도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ISC, 원익IPS 등 반도
체 기업 15곳이 포함돼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I
기술이 산업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상황에서 밸류체인에 포함된 한국 반
도체는 여전히 수혜 대상”이라며 “상승
세가 빨랐던 HBM 종목은 조정 시비중
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저무는 美 기술주는 ‘하락 요인’=
반도체주를 제외한 미국 기술주 움직
임이 지지부진한 점은 2분기 국내 증시

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통상 ‘미국
기술주→국내 반도체주→국내 증시’
순으로 영향을 줬왔기 때문이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
로소프트(MS),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뉴욕증시를 주도해 온 7대 미국 기
술기업 ‘매그니피센트 7(M7)’은 최근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엔비
디아는 1분기에만 88% 가까이 오른 반
면 테슬라는 30% 가까이 하락했다. 세
계 시총 1위 기업 애플도 같은 기간
7.6% 하락했다. 사실상 엔비디아를 제
외하고는 약세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이미 월가에서는 M7에 대한 거품론
이 커지는 분위기다. 헤지펀드 사토리
펀드 설립자인 댄 나일스는 M7에서 엔
비디아, 메타, MS, 아마존을 꼽아 ‘판
타스틱4’라고 불렀다. M7 용어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 오루크 존스 트
레이딩 수석 전략가는 “사실상 M7 시
대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반등에는 미국 기술주 호재도 영향을 미
쳤다”며 “미국 M7의 실적 시즌, 5월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4월 말~
5월 초 굵직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월 후반에는 상승 폭을 일부 반납
할 가능성은 열려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2분기 코스피 전망
치 밴드를 2600~2900포인트(p), 하
이투자증권은 2550~2850p로 제시했
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삼성전자 1분기 컨센서스 (단위 : 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63조7454	6402	1조5746
73조1920	5조1750	4조8120

SK하이닉스 1분기 컨센서스 (단위 : 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5조881	-3조4023	-2조5855
11조9751	1조4741	8771

반도체 ‘완전한 봄’…빅사이클 기지개

삼성 반도체 사업 1년 만에 흑전 예고
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1.5조 ‘파란불’
상장사 171곳 당기순익 39.8% ↑ 전망

국내 반도체에 봄이 오고 있다. 인공지능
(AI)으로 먼저 흑자전환에 성공한 SK하이닉
스에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1년 만
에 적자를 탈출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움츠
렸던 국내 상장사들도 어깨를 펴는 모습이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3곳의 전망치(컨센서스)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171곳의 1분기 당기순이익 컨
센서스(보합업 제외)는 전년 대비 39.8% 증
가한 30조92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장사 눈높이를 끌어올린 건 코스피 대장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이었다. 1분
기 삼성전자는 매출 73조1920억 원, 영업이
익 5조1750억 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작년 말 컨센서스보다 각각 1.2%, 2.9%
늘어난 금액이다. 영업이익은 1년 전 6400억
원과 비교해도 8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 호실적은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
이스솔루션(DS) 부문의 실적 개선 본격화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DS 부문은 정보기술(IT

) 전망 수요 둔화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악화
하면서 14조88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
다. DS 부문은 삼성전자 전체 사업 매출의 약
25.7%를 차지한다.

증권가에서는 DS 부문이 메모리 공급 감소
효과가 반영되면서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IBK투자증권(3340억
원), 메리츠증권(7000억 원) 등은 삼성전자
1분기 DS 부문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고, KB증권은 작년 4분기보다 3조 원 늘어
난 9000억 원으로 가장 높게 전망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폭은 더 크고, 빠
르다. 지난해 영업이익자 3조4023억 원을 기록
했던 SK하이닉스는 1분기 1조47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달
전 컨센서스인 1조1144억 원보다도 훌쩍 오
른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346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
다.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
모리(HBM)인 HBM3E를 최대 공급 중인 점
이 큰 호재로 작용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반
기 경쟁사의 신규 진입에도 SK하이닉스의 엔
비디아 HBM 시장 지배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희인 기자 hihello@

돌아온 수출효자… 제조업 전망, 3년 만에 최고

대한상의, 2230개 제조기업 조사

2분기 BSI ‘99’…전분기 대비 16p 상승
전기·반도체 ‘맑음’…철강·비금속 ‘흐림’

2분기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두 자릿수 상승세
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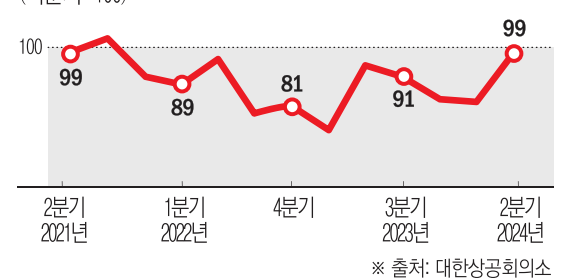
3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30개 제조기업을 대
상으로 ‘2024년 2분기 제조업 BSI’를 조사한 결과 1분
기(83)보다 16포인트(p) 상승한 99로 집계됐다. 3년
만에 기준치(100)에 가장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
답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2분기는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실적 개선
영향으로 수출기업 전망이 호전되면서 수출기업
(102)과 내수기업(98) 간 체감경기 전망이 엇갈렸다.

반도체(114)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준치를
웃돌았다. K뷰티 인기의 영향으로 화장품 수요 및 미
용 의료기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화장품(124)과 의료
정밀(119) 업종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배터리 핵
심 소재 가격 반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
(117)도 2분기 호조 전망이 많았다.

반면 철강(92), 정유·석유화학(97)은 중국 내수 부
진 및 공급 확대에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전망 회
복이 제한됐다. 비금속광물(90)은 전방 산업인 건설업

최근 3년간 대한상의 제조업 BSI 전망치
(기준치=100)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위축에 더해 유가, 연료비 인상 등 제재원가 부담으로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준치 이하로 하락한 조선
업(95)은 흥해 리스크 장기화뿐 아니라 인력난, 중소
조선사 실적 저하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2분기 기업 체감경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도
자동차·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호남권(109)과 반
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충청권(104)만이 기준치를 웃돌
았다. 동남권(96), 대경권(98)의 경우 철강 및 중소 조
선사 부진에 따라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부정적 전망
이 가장 강한 강원권(91)에서는 식음료 업체 등을 중시
으로 체감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이 많았다. 가격 상승
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
스크로 ‘내수소비 위축’ (55.2%)과 ‘원자재가·유가 불
안정’ (50.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수출활력을 내수
로 연결해 우리 경제가 성장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기술경영으로 일군 글로벌 효성... '섬유의 반도체' 신화 썼다

〈스판덱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004년 4월 중국 가흥 타이어코드 공장에서 직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타이어 보강재인 타이어코드는 자동차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소재로 효성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제공 효성

‘섬유왕’이 된 공학도

직접 현장 챙기며 밤샘 기술토론
신희 여행도 유럽 기술연수지로
한미·한일FTA 민간 외교 앞장
쏟소리 마다않는 경제계 지도자

89세를 일기로 지난달 29일 별세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생전 한국 중화학공업을 일으킨 주역으로 꼽힌다. 국제관계에도 밝은 ‘글로벌 경영인’이며, ‘기술 중시 경영인’으로도 평가받는다.

1935년 고(故) 조흥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석래 명예회장은 애초 경영에 큰 뜻이 없는 ‘학구 청년’이었다. 일본 와세다대 이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 공과대학원에서 화학공학 석사 학위를 딴 뒤 박사과정을 이어갔다.

학자의 길을 걸으려던 그였지만, 부친의 부름을 받고 1966년 귀국해 효성물산에 입사하면서 경영인으로 진로를 바꿨다. 그해 11월에는 효성의 모태인 동양나이론건설본부장을 맡아 울산공장 건설을 지휘하며 이후 화학섬유 분야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효성의 기반을 닦았다. 이후에도 1973년 동양폴리에스터, 1975년 효성중공업을 연이어 설립하며 사세 확장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공학도였던 조 명예회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지시하는 꼼꼼한 업무 스타일로 유명하다. 기술에 대한 집념도 강했다. 대표적인 일화가 신희 여행이다. 동양나이론 울산 공장을 짓고 있던 1967년 고(故) 송인상 전 재무장관의 딸인 송광자 여사와 결혼한 그는 신희 여행지로 이탈리아 포를리를 골랐다. 당시 이름도 생소했던 이곳을 택한 것은 동양나이론 기술진이 포를리에서 생산 기술 연수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직원들과 밤새 기술 토론했다고 한다. 1971년에는 국내 민간기업으로는 최초로 ‘기술연구소’도 설립했다.

그의 이런 관심과 노력이 세계 1위의 주요 제품을 만들었다. 효성의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는 미국 듀폰의 ‘라이크라’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가 됐다. 스판덱스와 더불어 효성의 간판 제품 중 하나인 타이어코드도 품질을 인정받아 1위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

책임기를 좋아하던 조 명예회장은 재계의 대표 학구파였고, 국제관계에도 밝아 민간외교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풍부한 국제 인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경제인들과 활발히 교류했고, 태평양경제협력회(PBEC), 한미경제회의,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

숭협력재단, 한중경제회의 등 재계의 국제 교류단체를 이끌며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가교 역할도 적극 펼쳤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에는 양국 재계 인사들과 미국 행정부·회의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는 등 민간외교의 중심에 섰다. 한·일 FTA 추진과 함께 양국 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확대를 모색하는 등 한·일 교류에도 적극적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간 부회장을 지낸 데 이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회장을 맡아 국내 재계의 ‘얼굴’ 역할도 했다. 2017년 발간된 조 명예회장의 팔순 기념 기고문집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는 재계의 지인들이 기억하는 그의 일면이 잘 드러나 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정부에 적극 의견을 밝히는 조 명예회장을 두고 ‘재계 지도자’라 칭했고,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미스터 글로벌’이라고 불렀다.

대내외 활동은 활발했지만 경영인으로서의 소탈했다. 해외 출장을 갈 때도 수행원 없이 다녔고, 일본 출장 때는 전철을 이용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조 명예회장을 마중 나온 임원들이 가방을 대신 들어주려고 하자 “내가 가방은 내가 들 수 있고, 당신들이 할 일은 이 가방에 전략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라고 한 일화도 유명하다.

송영록 기자 syr@

“기업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조석래 경영 어록

“도전은 하던 걸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

◇효성그룹 회장 재임 당시

“우리 모두의 일터인 효성은 산업을 일으켜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산업입국의 정신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산업입국의 정신이란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한다는 정신입니다. (1988년 12월 신입사원 연수)

“우리는 제품 하나하나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과 마케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는 물론이고, 고객이 미처 느끼지 못한 욕구까지 한발 앞서 발굴하여 이를 채워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0년 11월 창립기념사)

“도전이란 늘 하던 것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란 자세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 (2000년 11월 사내 행사)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아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손해입니다. 우리 경제를 크게 만들고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취업인구를 늘려서 그들이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함

니다.” (2000년 1월 신입사원 특강)

◇전경련 회장 재임 당시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국민의 믿음직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09년 1월 1일 전경련 신년사 중)

“대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기업 주변환경이 불확실하고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연못 속 물고기 떼에 조약돌 하나만 던지면 고기들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돈은 물고기와 같다. 조금만 불안해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2007년 4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중)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수출의 지속적 신장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조기발효를 통해 미국시장을 선점함과 동시에 경제의 개방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08년 1월 9일 FTA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 조찬간담회 중)

“우리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가는 동시에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2007년 3월 20일 전경련 회장 취임사 중)

정리 이동욱 기자 toto@



정재계 조문 행렬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빈소를 찾아 조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사진부터)과 전날 조문한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연합뉴스



효성 2개 지주사 개편...조현준·현상 계열 분리 속도

지분 균등 상속 전망

장남, 섬유·중공업 등 전통사업
삼남, 첨단소재 등 6개사 맡기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달 29일 별세했지만, 7년 전 2선으로 물러난 후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각자 현장 경영을 이끄는 체제가 정착한 만큼 당장 경영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앞으로 효성은 ‘형제 독립경영’과 계열 분리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효성의 경영은 창립 50주년이기도 한 2017년을 기점으로 창업 2세에서 3세로 완전히 넘어갔다. 당시 조현준 회장이 10년 만에 사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효성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 효율을 높이고자 2018년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효성은 지주회

사와 더불어 섬유·무역 부문인 효성티앤씨, 중공업과 건설을 담당하는 효성중공업, 첨단 산업자재를 생산하는 효성첨단소재, 화학 부문인 효성화학 등 4개 사업회사로 분할됐다. 이후 조현준 회장이 섬유 등 전통 사업 영역에서, 조현상 부회장이 산업용 소재 부문에서 사실상 독자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왔다.

효성이 계열 분리를 통해 그룹을 ‘형제 독립경영’하는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실제로 효성은 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조현상 부회장에 새로운 지주회사 경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효성은 2월 23일 이사회에서 효성첨단소재를 중심으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HIS), 효성토포타 등 6개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분할해 신규 지주회사(주)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결의했다.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7월 1일자로 효성그룹은 2개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조현준 회장은 존속회사를 이끌며 기존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회사를 맡아 첨단소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지분 10.14%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형제 독립경영 체제로 가는 흐름을 고려하면 특정인에게 지분을 몰아주기보다 균등 배분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효성지분율은 조현준 회장이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2%로 비슷하다. 재계인파에서는 향후 효성의 존속·신설 지주회사가 각자 이사진을 꾸린 뒤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서로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계열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불난 국민, 짝히면 뒤집힌다... 여도 야도 '票심조사'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의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섭 호주대사와 대파값 논란 등이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인해 정권 심판론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어서다. 다만, 야권에서 양문석·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 중도층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판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응답

국힘 '정부 지원론 살리기' 총력

커지는 '정권심판론' 속 위기 고조
'용산발 리스크 해소' 한동훈 띄우기
野 불공정 의혹' 맹공, 수도권 공략

률 15.4%)한 결과를 보면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총선 판세를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면서도 용산발 리스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약화시키고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최근 부

동산, 아빠 찬스, 내로남불 등 중도층의 '역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들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부각하며 수도권 민심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진보진영의 약점인 '불공정' 이미지가 재부각되면서 판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화성을 공영운,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등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과 공정 이슈에 얽힌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됐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후보는 '내로남불' 등 민심의 '역린'에 해당하는 문제에 둘러싸였다.

민주당에서는 각 사안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

민주당도 연이은 악재에 '진담'

양문석·공영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박은정 다단계·코인사기 변호 논란
여론조사 나오기 전 결단 내릴수도

대위 관계자는 "양문석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그 뒤에도 문제가 되는 보도가 나왔고 당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해선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당 관계자도 "위법성보다는 국민 눈높이의 문제일 수 있는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경합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중

도 표심도 확인 안 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에 결정한다는 건 늦은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가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254석 중 국민의힘은 80곳 안팎, 민주당은 110곳의 선거구를 우세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당 후보 간 접전이 예상돼 승리를 예단할 수 없는 '경합' 지역구의 경우, 국민의힘이 50곳, 민주당이 60여 곳 안팎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판세에 따라 결과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대환 기자 vishalist@·정영민 기자 oin@

“편법대출 큰 잘못, 이번엔 국힘” “물가가 더 문제, 한번 더 민주당”

배틀필드 410

7 안산갑

野양문석 '부동산 의혹' 직격탄
“전해철이 왔어야” 공천 쓴소리
“민심흐름 반반” 예측불허 판세

“이번엔 50대 50이다.”

3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사거리에서 만난 신모(60) 씨는 이번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백중세'가 될 것임을 점쳤다. 상록수역 앞에서 20년간 칼국수집을 운영해온 그는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세가) 반반이다. 정부가 물가문제도 있고 해서 심판 여론이 있지만, 민주당도 좀 그렇다고들 한다”며 “(양 후보) 딸 편법 대출 문제는 그러면 안 된다. 청년들이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들냐”고 말했다.

“딸 편법대출”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양문석(사진) 민주당 후보에 대해 여당이 연일 맹공에 나서면서 안산갑 유권자들의 민심에 균열이 일 조짐이 보인다. 안산갑은 줄곧 민주당계가 의석을 차지해오는 등 ‘진보 우세’가 상수였다.

유권자들은 지역 지지율이 높았던 전해철 의원의 공백과 양문석 후보의 ‘딸 편법대출’ 논란을 변수로 꼽았다. 양문석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출금 11억 원을 동원했다는 논란이 일자 전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다만 ‘사기대출이 아니다’라며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저격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한 지원 유세를 통해 “사업자금이었다. 사업자들, 상공인들이 써야 할 돈이다. 피해는 국민이다 본 것이고 그 돈 못 받아간 소상공인들이 피해

자”라며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등기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이다.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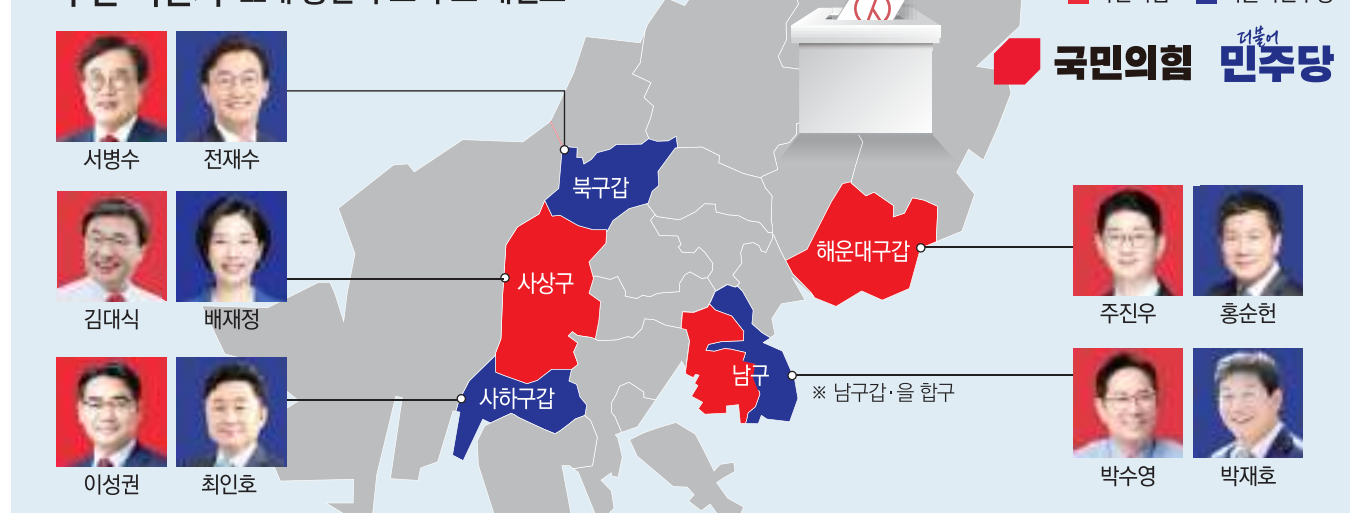
이날 오후 반월동역 앞에서 만난 진모(67) 씨는 민주당계 지지가 우세한 안산갑에서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이슈 등으로 여야의 총선 지지율이 비슷할 거란 의견을 내었다. 반월동에서 생선·야채 가게를 운영 중인 그는 “딸 편법대출은 좀 잘못됐다. 그 양반이 국회의원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해철 씨가 왔으면 선거 안 해도 됐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래도 여기는 원래 야권이 세서 모른다. 50대 50”이라며 “그런데 장성민 후보도 오리지널 민주당 출신이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오동에서 40년간 과일가게를 운영해온 이모(68) 씨는 “주변에서 50대 50이라고들 한다. 전해철이 없는 데, 물가도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고집이 세다”며 “편법대출 문제로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진 데다 정치인들의 거친 발언으로 피로감이 겹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사동에서 10년간 택시 운전을 해온 이모(66) 씨는 “전해철이 떨어져서 이번에는 잘 모르겠다. 당에서 자른 거나 마찬가지로 아니냐”라며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재명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다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산=정성욱 기자 sajikoku@

‘부산 격전지’ 22대 총선 후보 주요 대진표



보수텃밭, 시퍼렇게 물드나... ‘부산 혈투’ 예고

총선리딩방 부산 격전지

지난 총선에서 18개 지역구 중 14석을 국민의힘에 안겼던 부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권심판론’이 커지면서 부산 곳곳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출하고 있다.

직격탄을 강하게 맞은 곳은 해운대갑이다. 3월 말 발표된 한국리서치(KBS부산·국제신문 의뢰) 여론조사에서 홍순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3%,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는 39%로 나타났다(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 해운대갑은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의 부촌이 있어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다. 21대 총선 당시 하태경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59.47%로, 유영민 민주당 후보(37.38%)를 22.1%p 차로 따돌리며 이겼다.

주진우 후보와 홍순현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국힘, 전략공천 ‘해운대갑’서 고전
현역 대결 ‘남구’ 오차범위 내 각축
장제원 떠난 ‘사상’도 초박빙 양상

나오면서 당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부산 지역구 캠프에 있는 여론 관계자는 31일 본지에 “해운대갑마저 흔들리면서 지난 총선 때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며 “기세가 꺾인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총선에서 구가 합쳐진 남구도 ‘현역 대 현역’ 매치의 최대 격전지다. 3선에 도전하는 박재호 민주당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박수영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지역 기반이 탄탄한 데다 지지층이 분명하다. 지난 달 25일 공개된 한국리서치(KBS부산·국제신문 의뢰) 여론조사 결과 박재호 후보 44%, 박수영 후보 42%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95%에 신뢰수준 ±4.4%p).

부산 사하갑에선 재선 의원인 최인호 민주당 후보가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지난달 26일 공

개된 한국리서치(KBS부산·국제신문 의뢰) 여론조사에서 최인호 후보의 지지율은 50%, 이성권 후보는 39%로 나타났다(95%에 신뢰수준 ±4.4%p).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물러난 부산 사상은 배재정 민주당 후보와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엇치락뒤치락해 승부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같은 달 27일 발표된 ㈜에브리리서치(에브리뉴스 의뢰) 여론조사에서 배재정 후보 46.6%, 김대식 후보는 45.7%를 기록했다(95% 신뢰수준에 ±3.7%p).

부산 지역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바람을 타면서 부동산이 크게 늘어났다는 게 지역 인사들의 전언이다. 부산에서 20년 거주한 직장인 박모(31) 씨는 “지금 부산은 물가 등 ‘윤석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본래 보수 지지자라 해도 이번에는 생각보다 유동적으로 투표할 사람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난희 기자 nancho0907@

〈경기 부천갑〉

〈성남분당갑〉

최고 주식부자 후보 김복덕... 2위는 안철수

1인당 평균 재산 28억 원을 기록한 22대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주식을 샀을까.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후보자 952명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후보자들은 ‘국민주’ 삼성전자부터 비상장 회사까지 다양한 종목을 갖고 있었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지역구 후보자 중 최고 자산가로 꼽힌 김복덕 국민

의힘 경기 부천갑 후보의 1000억 원대 포트폴리오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소록스(2653만5000주), 동원금속(46만3500주), 파라다이스(7만2000주), 일지테크(1만5000주), 모베이스(1만4000주) 등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된 조명업체 소록스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 후보는 신고자산 대부분(약 1351억5418만 원)이

주식이었다.

근소한 차로 자산 순위 2위를 기록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안랩 주식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안 후보가 출마한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에는 안랩 본사가 있다. 안랩 주가는 대주주인 안 후보의 정치 행보에 따라 상승세와 하락세를 보이며 대표적 ‘정치테마주’로 자리해왔다. 박민규 기자 pmk8989@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목표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드업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친환경 기술
AI로 더 가까워진 에너지 트랜지션까지

**SK의 솔루션으로, SK의 팀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與 “5세부터 무상보육…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무상교육 4세·3세로 점차 확대
누리과정 교육비·보육료 지원도
월 최대 28만원→55만7000원
늘봄학교, 부모 퇴근때까지 운영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은 이 지원금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세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4~5세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까지 합친 수준으로 각각 올려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한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교육비도 현실화하거나 상향하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그는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격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고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하남 지원유세 나선 한동훈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하남시갑 이용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양을’ 표발 다지는 이재명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계양구 서운동 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국힘 ‘악어의 눈물’ 읍소 작전에 속으면 안돼”

“총선 참패할 거 같으니까 엄살…
수없이 반성했지만 바뀐 적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악어의 눈물, 이번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31일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정부 이쪽이 이제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다 엄살”이라며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레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라며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다.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뭘 짓이라도 할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대표는 “차라리 주어진 권력으로 부패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나쁜 짓이기는 한데 그렇다 쳐도 국민을 상대로 직접 대놓고 기만 행위하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속으면 안 된다. 정말로 다급한 건 우리”라며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국회

1당이 되거나 이런 순간이 오면 이 나라가 견잡을 수 없다. 심판은 커녕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표심 다지기도 나섰다. 부활절이기도 한 이날, 이대표는 오전부터 부활절 예배와 미사 일정에 이어 유세자 순회를 하며 ‘안방’ 유권자 공략에 집중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 찾은 교회에서는 같은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마주치기도 했다.

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계양구 가나안교회 부활절 예배 참석에 이어 서운동성당 부활절 미사에 연이어 참석하며 지역 일정을 소화했다. 그간 주요 격전지를 돌며 유세 지원에 집중했던 이대표가 이날은 지역구 사수에 나선 셈이다. 이대표는 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부활절 아냐. 이 나라도 다시 새로운 나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나안교회 예배 행사에선 원 후보와 의어색한 만남도 이뤄졌다. 이대표와 원 후보는 예배 내내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고, 행사장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통상적인 인사도 하지 않은 두 후보는 예배 행사가 끝난 뒤에야 인사를 나눴다. 예배당을 먼저 나선 원 후보가 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이대표가 이에 응했다. 정영민 기자 oin@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지난해 실적 못 낸 기업들… 법인세 내리막 불가피

상반기 영업이익 1년새 70.4% ↓
경기둔화 땐 법인세 동반 하락
정부 감세 정책도 감소에 영향

2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실적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 가능성이 크

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 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된다. 작년 2월 법인세가 전년보다 300억 원

늘었지만 같은 해 3월에는 6조1000억 원이나 급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가 시작된 2022년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1.8% 급감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 연간 법인세는 8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이에 따라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에서 2023년 23%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는 작년 1~6월 영업이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 납부세액(8월)이 줄어든 것도 반영됐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수출감

소 등으로 전년대비 70.4% 급감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연간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한 상장사 247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297조9728억 원으로 전년(356조2112억 원) 대비 16% 낮았다. 지난해 초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400조5103억 원)과 비교하면 25% 적은 수치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법인세를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감세 지원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견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든 전망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국민열차’ KTX 개통 20년… “10억5000만명 신고 전국팔도 누볐다”

연간 8900만명·하루 23만명 이용
전국 어디든 2시간 30분 내 도착
친환경열차 EMU-320 개통 눈앞

2004년 4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고속열차 KTX가 개통 20년을 맞았다. 누적 이용객은 10억5000만 명, 연간 이용객 8900만 명에 달하며 전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3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20년간 KTX 누적 이용객은 4월 1일 기준 10억5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명당 스무 번 이상 탄 셈이다.

KTX는 개통 2주 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고 142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3년 21일 만인 2007년 4월 21일에는 누적 이용객 1억 명을 달성했다. 이는 일본 신칸센의 3년 3개월 17일, 프랑스 TGV의 5년보다 앞선 기록이다. KTX가 달려온 누적 운행 거리는 6억4581만km에 달한다. 지구 둘레를 4만km로 환산할 경우 지구를 1만6150바퀴 도는 것과 같다. 2004년 개통 첫해 경부, 호남 2개 노선 20개 역에만 다니던 KTX는 2024년 현재 전국 8개 노선의 69개 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KTX는 우리나라 간선철도망 최고속

도를 기존 시속 150km에서 300km로 두 배 도약시키며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KTX 덕에 지역 간 통행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었다.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KTX를 타면 부산(2시간 23분)·목포(2시간 27분)·강릉(1시간 49분)·안동(2시간 28분) 등 국내 어디든 점심 전에 도착할 수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만 명으로 개통 초기 7만 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연간 이용객은 개통 첫 해 2000만 명에서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역은 서울역(하루 9만7000명)으로, 2004년 대비 약

2.2배 늘었다. 2008년 탄생한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과 함께 한국은 일본,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됐다. 100% 국내기술로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KTX-이음은 칸마다 동력과 제동장치가 분산 배치돼 최고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가·감속이 자유로워 역 간 거리가 외국보다 짧고 터널·교량이 많은 한국 철도 환경에 적합하다. 개통을 앞둔 EMU-320은 최고속도 시속 320km로 제작된 차세대 친환경 고속열차로,

KTX 중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이자 속도와 빠름의 대명사로서, 국민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며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제도와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채소값 점검하는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아 농축산물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내 취약계층 고용센터 근로자 1인당 720만원 지원”

고용부, 사업주에 ‘고용촉진장려금’
광주·안양 등 5개 센터 시범사업

기존 취업취약계층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자립준비청년 등 지역 상황에 맞게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광주, 안양, 전주, 서울남부, 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촉진장

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더해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광주고용센터는 최근 대우위니아 법정부관리사태로 위기를 맞은 가전제조업과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지원한다. 경기도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

소 청년 등을 특별 지원한다. 전북 전주, 완주, 진안 등을 관할지역으로 둔 전주고용센터는 지역 소재 7개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직장문화 교육과 병행해 취업을 돕는다. 서울남부고용센터(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는 남북하나재단과 협업체 북한 이탈주민의 취업을, 충북 청주고용센터는 중장년내일센터 등과 협업체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식료품업 재취업을 집중 지원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유가·환율 요동에 먹거리 비상 3월 물가도 2%대 진입 못할듯

OPEC+감산 연장·환율상승 겹쳐
증권사들 “물가상승률 평균 3.2%”
정부 지원금 투입효과 가시화 아직

과일가격 상승세에 국제유가와 환율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3월 소비자물가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애초 3월부터 하향 안정세를 전망했지만 당분간 ‘울퉁불퉁한(bumpy) 경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NH투자·교보·메리츠·DB금융투자·상상인·신영·하나·하이투자 등 8개 증권사는 3월 물가상승률을 평균 3.2%로 전망했다. 유일하게 메리츠증권이 2%대(2.9%)를 제시했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모두 3.2% 또는 3.3%를 내다봤다. 물가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전년도 물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에는 다시 3%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다. 올해 1월 2.8%로 2%대로 떨어지자 했지만 2월에 다시 3.1%로 고점을 높였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환율 등 포괄적인 변수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 5월 인도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28일 배럴당 83달러에 거래됐다. 2월 초(72~73달러)와 비교하면 15% 안팎 올랐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위협 등 지정학

적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감산을 연장하면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환율도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29일 원·달러 환율은 1347.20원에 마감했다. 올해 첫 개장일(1300.4원)과 비교하면 50원 안팎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는 작년 11~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2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 물가 눈높이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월 3.2%로 전달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정부는 당초 3월부터 물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봤다. 긴급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 투입에 따른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2%대 진입까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긴급 가격안정자금이 본격 투입되면서 농산물값은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3월 지표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원물가가 2%대로 다른 주요국보다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고착화’(Inflation-Entrenchment) 정도도 영미권 주요국보다 크게 낮다는 분석이 많다”며 “일시적 요인들만 완화되면 2%대 초중반까지 빠르게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美 주식 너무 비싸”… 유럽 증시로 눈 돌린 헤지펀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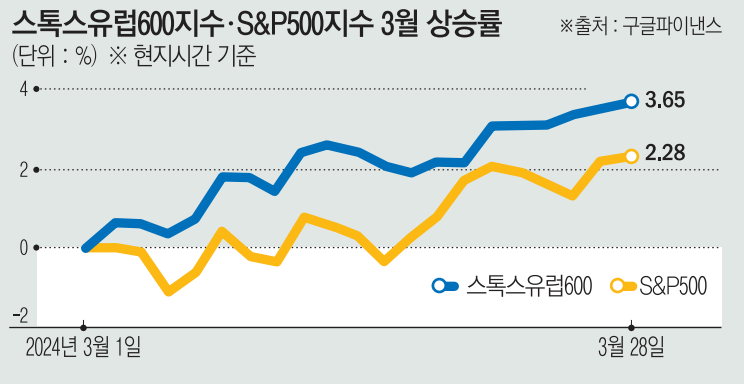
지난주 투자 비중 5.8% 사상 최대
경제 반등 기대에 투자 심리 개선
美 지수 고평가에 거품 부담감 ↑
골드만삭스 “유럽 팽리 기회 커져”

헤지펀드들이 미국증시에서 유럽증시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주식 팽리의 다음 단계를 유럽증시가 주도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MSCI 올컨트리 월드지수(ACWI)에서 유럽에 대한 헤지펀드 투자 비중은 지난주 5.8%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매도 포지션이 줄어든 것이 유럽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음을 보여줬다. 지난해 말 기준 유럽증시의 매도 포지션 전망치는 전체 시가총액의 0.2%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적어도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수치다. 전망치는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달 뱅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독일).



AP뉴시스

크오브아메리카(BoA)의 설문조사에선 펀드매니저들의 유럽 주식 할당이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범유럽증시 벤치마크인 스톡스 유럽600지수는 3월에만 약 4% 상승하며 뉴욕증시 벤치마크 S&P500지수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독일과 영국이 장기적 경기침체를 피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경제성장 반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헤지펀드가 미국이 아닌 유럽에 집중하는 이유는 유럽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미국 주식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불안감도 한몫한다.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66% 상승했다.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고 성적이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5.5%, 11% 올랐다. 이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뉴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폴 브

레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는 충분히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팽리 이후 경쟁과 규제로 인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럽 주식이 미국보다 나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S&P500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종전 5200으로 유지하면서도 부정적 시나리오에선 4500으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빅테크 실적에

대한 시장의 지나친 낙관론에 따른 붕괴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 두 가지를 변수로 언급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 투자전략가는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연착륙 가능성에 따라 (미국 밖) 팽리 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 기술주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밸류에이션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증시를 사로잡은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S&P500지수의 행운은 점점 더 비싼 기술주에 의존하고 있다”며 “비싸진 미국증시는 닛컴버블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고평가에 부담을 느끼고 올해 상승세에도 밸류에이션이 미국보다는 낮은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톡스 유럽600 종목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 비율(PER)은 약 14배로 장기 평균보다 약간 높을 뿐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루마니아·불가리아, 생겐조약 부분 합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생겐조약에 부분적으로 합류한 첫날인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을 출발해 이날 루마니아 ‘헨리 코안다’ 부쿠레슈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승객이 인터뷰 하려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양국은 10차례가 넘는 협상 끝에 유럽연합(EU) 가입 후 17년 만에 생겐조약 가입국이 됐다. 다만 난민과 이민자 유입을 우려한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해상과 항공을 통한 입국자만 이 조약이 적용된다. 생겐조약은 유럽에서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조약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생겐조약에 부분적으로 합류한 첫날인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을 출발해 이날 루마니아 ‘헨리 코안다’ 부쿠레슈티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승객이 인터뷰 하려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양국은 10차례가 넘는 협상 끝에 유럽연합(EU) 가입 후 17년 만에 생겐조약 가입국이 됐다. 다만 난민과 이민자 유입을 우려한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해상과 항공을 통한 입국자만 이 조약이 적용된다. 생겐조약은 유럽에서 가입국 간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조약이다.

마진 악화에 사법 리스크까지… 사면초가 ‘애플’

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
순이익 40억달러 적어 이익 감소
美 반독점법 위반 제소 등 수난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제재에 직면한 애플이 아이폰 수익 감소까지 났지면서 ‘최고의 성장주’, ‘혁신의 아이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등 회사를 수식했던 각종 명성이 뿌리째 위협받고 있다.

일본 닛케이아시아(닛케이)는 지난달 30일 도쿄에 본사를 둔 전자기기 분해 연구소 ‘포말하우트테크노솔루션스’의 분석을 인용해 애플이 작년 9월 출시한 아이폰15 시리즈의 4가지 모델이 전년도 모델보다 폰당 제조비용이 약 10% 더 소모됐다고 보도했다.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어려움으로 아이폰 부품 가격이 상승했다고 포말하우트는 설명했다.

애플은 최고급 사양인 아이폰15 프로 맥스를 제외하고 수년 동안 신규 모델의 출고

가를 거의 균일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제조비용 증가로 아이폰15 표준모델 1대당 이익은 370달러(약 50만 원)로 전작보다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이폰15 프로와 아이폰15 플러스의 대당 이익은 각각 462달러, 451달러로 추산됐다. 둘다 전년에 출시된 같은 라인업보다 10% 감소한 수치다.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제품이다. 애플은 그간 통상 아이폰 이익률이 50~60%였지만, 아이폰15와 아이폰15 프로의 경우에는 46%로 떨어졌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즈호증권의 나카네야스오 수석 애널리스트는 아이폰15 시리즈가 전작에 비해 순이익이 40억 달러 더 적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 경기가 침체되고 현지 기업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판매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플의 수난은 이것뿐이 아니다.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는 지난달 21일 애플을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또 같은 달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18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EU 집행위는 알파벳(구글), 메타와 함께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올 초부터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를 하향하고 있다. 팩트셋에 따르면 애플을 다루는 44개 증권사 중 57%인 25개사가 매수 추천을 했는데 이는 약 4년 내 최저 수준이다. 다른 기술 대기업 주가가 연초부터 상승세인 반면 애플은 유일하게 11% 하락했다.

이진영 기자 mint@

中 완다, 600억위안 투자로 기사회생

홍콩·중동 기관투자자 다수 참여
쇼핑몰 운영권 넘기며 한숨 돌려

막대한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부동산·엔터테인먼트 기업 완다그룹이 600억 위안(약 11조 원)의 투자를 유지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달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완다그룹은 홍콩·중동 등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600억 위안 규모의 거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홍콩 기반 사모펀드 PAG와 중국 중신증권(CITIC) 계열 투자회사, 아부다비투자청(ADIA),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번 거래는 1월 설립된 완다상업관리그룹의 지주회사 뉴랜드커머셜매니지먼트가 전액 출자받는 형태로 이뤄진다. 투자자들은 회사 지분의 60%를 보유하게 되며 나머지 지분은 완다그룹이 갖는다. 완다상업관리그룹은 쇼핑몰 ‘완다광장’을 관리하는 주체로, 현재 중국에서 496곳의 대형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닛케이에 “완다가 주력 회사의 경영 주체를 외부 투

자자에게 넘기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PAG의 데이비드 웡 파트너는 성명에서 “(이번 투자는) 뉴랜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제 기관투자자들의 기대와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1988년 설립된 완다그룹은 상업시설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며 중국 경제 성장과 함께 급부상했다. 호텔과 영화관, 테마파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기업도 적극적으로 인수했다. 창업자인 왕젠린 회장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최고 부자로 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중국당국이 자본 해외 유출과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고자 완다그룹에 대한 은행 대출을 막으면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됐다. 완다그룹은 시장 확장 전략이 좌절되고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게 됐다. 이후 호텔, 테마파크 등 자산을 매각하면서 차입금 상황에 집중해 왔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완다그룹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채권 상황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완다그룹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아현 기자 cahyun@

美 통신사 AT&T, 고객 정보 유출에 골머리

7300만명 계정 다크웹 해킹돼
“모든 고객 연락… 경위 파악 중”

미국 메이저 통신사 AT&T가 약 7300만 명 고객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됐다고 밝히면서 자사 네트워크 인프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T&T는 성명에서 “현재 계정 소유주 약 760만 명과 이전 고객 6540만 명의 데이터가 다크웹에 유출됐다”며 “데이터 유출은 약 2주 전에 발생했다. 고객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

장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60만 명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영향을 받은 모든 고객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T&T는 또 “데이터 유출 경위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데이터를 빼낸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이번 유출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아현 기자 cahyun@



“
주문접수도 결제도
대신 받아주고
맛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매장 경쟁력이
더욱 올라가더군요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하이오더

- ✓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 안정적인 네트워크 · 전국 직영 A/S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하니
너무 편리해요
”

전기차 시장, 당파싸움에 ‘냉각’… “중국만 유리하게 할 뿐”

정치 양극화가 시장 걸림돌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이 수요 둔화 속에 흑한기를 맞았다. 그간 배터리 충전소 부족이나 비싼 가격 등이 시장 확대에 제동을 건 요인으로 거론됐지만, 사회 양극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UC버클리 하스경영대학원의 루카스 데이비스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미국 전기차 시장과 정치적 양극화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2~2022년 보급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과반이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상위 10%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비스 교수는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성숙해졌고, 이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상관 없이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더 많이 보급됐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이번 결과는 전기차의 광범위한 채택이 과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 상위 10% 지역에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과반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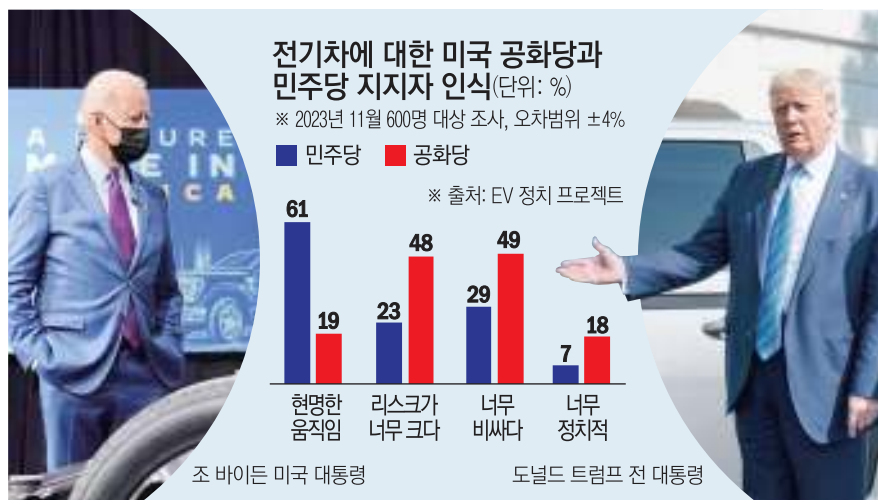
구매할때 주변사람 인식 질문엔 민주당 61%, 공화당 19% “굿”

선명한 ‘당파성’ 시장 위협 지적 한편 공화당 긍정적 변화 감지도

는 점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기차 인기는 기후변화에 신경 쓰고 있다는 ‘외적 동기’가 구매에 영향을 미친 것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기후변화는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언급을 꺼리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공화당 선거운동본부에서 활동했던 공화당원 마이크 머피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머피는 정치적 당파성이 더 선행해지면서 전기차 보급을 가



로막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한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인면서 전기차 애호가인 인사들을 모아 ‘EV 정치 프로젝트’라는 비영리단체도 세웠다.

EV 정치 프로젝트가 자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보편적으로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지녔지만, 전기차에서만은 분열된 양상을 띠었다. 구체적으로 ‘전기를 샀다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친척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답한 비중은 민주당원이 61%, 공화당원이 19%로 갈렸다.

머피는 이러한 양극화가 결코 시장에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절반이 사상이나 당파라는 어리석은 이유로 전기를 배제하고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중국만 유리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선 파산 위기를 맞은 전기

차 스타트업 피스커가 상장 폐지되고 리비안이 조지아 공장 착공 2년 만에 건설을 중단하는 등 전기차 시장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전반적인 수요 냉각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들은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는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짚었다.

물론 미국 전기차 업계에도 희망적인 부분은 있다. 머피는 “여론조사 결과 정당과 관계없이 미국인 대부분이 전기차에 대해 중요한 공통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들은 높은 전기차 가격이나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된 점 등을 우려했다”며 “업계는 전기차에 열마나 친환경적인지 호소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기차에 가진 이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간 전기차에 거리를 두던 공화당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전기차 고속 충전소를 개장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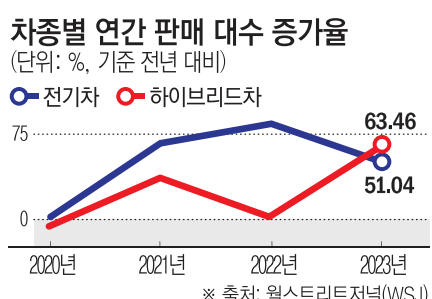
급부상하는 하이브리드차… 친환경성 두고 의견 분분

미국에서 전기를 대신해 하이브리드차(HV)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그 친환경성을 두고 자동차제조업체와 환경운동가들 사이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주목했다.

하이브리드차는 가솔린 엔진과 배터리 동력을 모두 사용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나 트럭보다 연비가 월등하다. 또 전기차 시장 둔화 속에 인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대수 증가는 약 63%로 전년의 3.85%에서 수직 성장했다. 반면 전기차는 전년의 83%에서 51%로 둔화했다.

기업들은 하이브리드차도 환경에 이롭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다. 하이브리드차의 강자로 꼽히는 도요타의 미야자키 요이치 수석 부사장은 “하이브리드차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 옵션 중 하나”라며 “그 인기는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운동가들은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티즌의 애런 레건버그 수석 정책 고문은 “가솔린 자동차를 길에 더 많이 배치하면서 그것이 기후에 좋다고 말하는 것은 오



해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논쟁은 올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 발표를 앞두고 시작됐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전

기차 보급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환경 규제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 지었다.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단계적으로 배출 허용량을 줄인다는 목표를 담았으며, 2032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은 56%로 늘려 배출가스는 2026년 대비 49% 감축한다는 게 골자다.

도요타 혼다, 포드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규제를 막기 위한 로비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 속도는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엄격한 전기차 의무화는 실제로 환경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충전

에 사용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나 석탄이 필요하고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시 배출되는 탄소량이 내연차보다 더 많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면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압도적이다. 미 에너지부가 2022년 다양한 에너지원의 전기 평균 값을 적용해 차종별 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환산으로 연간 약 1.2톤(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반해 하이브리드차는 3.1톤으로 전기차의 2.6배에 달했다.

전아현 기자 cahyun@

THE HYUNDAI

NEW
OPEN

04. 01

FOOD PARK

현대백화점 중동점 B1 | 7 부천시청역 3번 출구



자세히 보기

지금 가장 현대적인 미식 생활, 푸드파크가 찾아옵니다

푸드파크에서 현대백화점이 엄선한 미식 브랜드를 경험해 보세요. 전국 로컬 맛집부터 트렌디한 디저트까지, 미식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호우섬
홍콩 현지 맛을 재현하다



소바 카덴
정호영 셰프가 선보이는 소바



노티드
다양한 도넛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카페



치플레
연남동의 치즈 수플레 숍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아름 | 현대그린푸드 | 한성 | 더한성닷컴 | 현대리버트 | 현대이저빌 | 지누스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린이책이슬관

대기업 5곳 중 1곳 “내년 공채 폐지”…수시·경력직 확대

노동研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

공채 제도를 시행하는 대기업 5곳 중 1곳은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정기 공개 채용이 줄고, 수시·상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00인 이상, 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 중 100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지난해 8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연도별 채용 방식

공채 비율 4년새 4.1%p 하락

수시 2.7%p·상시 1.3%p ‘쑥’

2022년 경력직 비중 신입 넘어

경력직·중고신입 선호경향 강화

을 살펴보면 정기 공개 채용의 경우 2019년 전체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9%였는데, 2022년 37.9%, 2023년 35.8%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시채용 비율은 45.6%→46.4%→48.3%, 상시채용은 14.6%→15.7%→15.9%로 꾸준히 증가했다.

공개채용은 정해진 기간에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모두 지원기회를 주고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수시채용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요가 생겼을 때 즉시 공고를 내 채용하는 방식, 상시채용은 지원 창구를 열고 상시 지원을 받아 채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의 경우 수시·상시채용 비중(64.2%)이 공채의 1.8배였다. 수시 채용이 늘어나는 경향은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86곳에 향후 공채 유지 계획을 묻은 결과 72.1%는 폐지 계획이 없다고 답했지만, 19.8%는 올해까지만 공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수시 채용을 함께 운영 중인 사업체 86곳 중에선 33.7%가 3년 이내에 정기 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채용만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 채용은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신규 채용 인원의 47%는 신입직, 11.6%는 경력신입직(1~2년 내 퇴직해 신입으로 재취업한 경우), 41.4%는 경력직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신입 비율은 40.3%로 줄고, 경력신입직과 경력직의 비율은 각각 13.6%, 46.1%로 늘었다. 2022년부터 경력직 비중이 신입보다 커졌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수시 채용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인력을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고), 조직 경험을 몇 년 정도 가진 경력신입직인 이른바 ‘중고 신입’ 또한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합격자의 지역, 학교, 성별 등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시 채용을 강조하는 채용 방식의 변화, 경력직을 선호하는 인재상의 변화가 채용 다양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美 컨슈머리포트 ‘최고의 폰 카메라’ 삼성 갤럭시S24울트라

2억 화소 품질에 총점 87점

아이폰15 프로맥스와 1점차

갤럭시S24플러스는 85점 3위에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S24울트라(사진)가 미국 유력 소비자전문지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하는 ‘최고의 폰 카메라’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4 울트라는 총점 87점으로, 86점의 아이폰15 프로맥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갤럭시S24 플러스는 총점 85점으로 3위,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23 울트라는 총점 84점으로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컨슈머리포트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제품에는 최고 수준의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고 언급했다.

갤럭시S24 울트라에 대해 2억 화소의

메인 카메라 등을 탑재해 후면 카메라 이미지 품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선된 자이로센서는 촬영 중 손떨림 등에 보다 적응력있게 반응하고,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갤럭시S24 시리즈에 대해서는 최초로 갤럭시 AI 시스템이 탑재돼 사진 속 지나가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등 최선의 사진 편집을 제한한다고 극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출시된 갤럭시S24 시리즈는 출시 28일 만에 국내에서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 역대 갤럭시S 시리즈 가운데 최단 기간 100만 대 판매 신 기록을 세웠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SK지오-울촌화학, 재활용 쉬운 플라스틱 포장재 맞손

양사 업무협약 체결하고 생태계 활성화·시장 발굴

SK지오센트릭과 울촌화학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여줄 고기능성 플라스틱 포장재 개발에 나선다.

SK지오센트릭과 울촌화학은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기술 개발 및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그동안 쌓아온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단일 소재의 고기능 플라스틱 연포장재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흔히 비닐로 불리는 필름·시트형 연포장재는 온도·습도 변화로 제품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여러 소재를 층층이 쌓아 만들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했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플라스틱 연



SK지오센트릭 직원들이 SK지오센트릭의 단일 플라스틱 소재로 울촌화학이 제조한 포장재 시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지오센트릭

포장재는 국내에서만 연간 36만 톤(t)이 사용되지만 여러 소재별로 분리 배출이 거의 안 돼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다”며 “단일 재질로 고기능의 파우치형 포장재를 만들면 재활용이 훨씬 수월해져 자원순환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사는 얇은 두께에도 동일한 강도 등 향상된 물성을 갖는 플라스틱 감량 포

장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발포 필름 기술 등을 활용해 동일한 기능을 갖추면서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포장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등 화학적 기술로 재활용한 소재로 제조하는 포장재도 개발할 방침이다.

조재성 SK지오센트릭 패키징 솔루션 사업

부장은 “포장재 전문기업인 울촌화학과의 협업을 통해 재활용이 쉬운 고기능성 포장재 개발은 물론 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택 울촌화학 포장사업부장은 “수십 년간 쌓아온 포장재 기술과 업력을 토대로 SK지오센트릭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형 고기능성 포장재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17기 수료식과 1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한국무역협회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 17기 수료

무협, 17년간 1.1만명 배출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17기 수료식과 18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GTEP는 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0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실무형 무역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전국 2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17기 수료생 681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약 1만1000명의 무역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17기 수료생들은 동남아시아, 중남미, 인도 등 6개 특화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인

어·시장특성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비롯해 무역실무·현장실습 등 총 4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또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1698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17년간 수료생들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달성한 누적 수출실적은 1억 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정희철 무협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은 “무역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과정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아이오닉 5 자율주행 로보택시, 美서 운전면허 땀다

자율주행 기술 안전·신뢰 전달
고객에 이동 자유와 평등 선사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 로보택시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알렸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5 자율주행 로보택시(robotaxi)가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는 캠페인 영상을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과 신뢰, 그리고 다양한 고객에게 이동의 자유와 평등을 선사하는 포용성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영상은 일상에서 이동의 제약을 겪고 있는 실제 시각장애인 펠 아웃로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아이오닉 5 로보택시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를 표현했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미국 네바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30일 현대차 월드와이드 유튜브 채널에 아이오닉 5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는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운전면허 시험 통과’ 영상 캡처 화면.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주행 시험관의 감독하에 실제 미국 운전면허 시험과 유사한 과정에 도전했다. 교통법규 준수, 옆 차로 상황 인지, 급정거 등 라스베이거스 내 도로 주행 및 운전 시험을 통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명했다.

아이오닉 5 로보택시는 차량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

지성원 현대자동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오닉 5 로보택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변화를 줄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통신비 언급’ 선거철 급증… 담합방지·할인 단골 메뉴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거를 전후로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올해 4월 총선까지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0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통신비 관련 보도에 유의미한 데이터 변화가 보였던 시기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다. 당시 통신비 관련 보도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신비 관련 보도는 선거가 치러진 12월 145건으로 그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단위 요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292건으로 당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언론의 통신비 관련 보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9월 ‘1초 과금제’ 도입 등으로 관련 보도가 232건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초단위 요금제 도입, 가입자 및 문자서비스(SMS) 요금인

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MVNO) 등 장으로 통신비 관련 보도가 다시 한번 급증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조항(제38조)을 마련하자 속속 사업자들이 등장했다. 2011년 3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474건, 그해 6월 444건으로 당시 최고

2007년부터 선거 전후 기준으로

정치·언론서 관련 보도 거론 증가

2017년 통신비 인하로 관심 집중

코로나팬 ‘지원’ 역대 최고치 경신

올해 3월 437건 기록 이슈화 시동

치를 경신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도 통신비 관련 보도가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301건을 기록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내 현실화했다.

이후 굵직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는 증가세를 그렸다.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787건으로 치솟았다. 2015년 5월 이동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거론되면서 통신비 관련 보도는 800건을 넘어섰다.

요금인가제는 과도한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1위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이통사 간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2020년 5월이 돼서야 폐지 됐다.

2017년 5월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가 1251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만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6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1251건으로 급증했다. 문 대통령

은 후보 시절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은 꾸준히 감소하다 2020년 9월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보도가 2553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감소세를 그리던 통신비 관련 보도가 다시 늘어나게 된 건 2023년 하반기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다. 지난해 하반기 꾸준히 늘어나던 통신비 관련 보도는 올해 3월 437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며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이통사를 압박해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게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우리 기자 inglass@

진입 장벽 한층 높아진 ‘실명계좌 발급’ 코인마켓 “1거래소 1은행 룰 바뀌어야”

특금법 국무회의 통과했지만
발급기관 외에 추가요건 없어
역량 대신 자격증 보유만 치중
“업무·직위별 차별화 교육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기존 대비 구체적인 요건들이 추가됐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특금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이 갖춰야 할 요건이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

력을 확보하고,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해야 한다.

같은 날 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 한국에 따르면 현재 원화 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한 은행 내 CAMS(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현황은 신한은행(305개), 농협은행(121개), 카가오뱅크(36명), 전북은행(30개), 케이뱅크(25명) 순이다.

금융당국은 과거부터 금융회사를 두고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에 대해 강조해왔다. 올해 1월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024년도 AML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1거래소 1은행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지방은행간 실명계좌 발급 관련 움직임이 있어왔다. 그러나 기존에 실명계좌 발급을 하는 은행 대비 지방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부족한 곳이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원화 거래소와 계약 중인 은행 대비 CAMS 자격증이 적은 은행은 경남은

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토스뱅크, 수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다.

코인마켓 거래소관계자는 “AML 능력이 부족한 지방은행이 고위험 업군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까지 한다면 위험 관리가 되겠냐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전문가에 따르면 “금융 당국에서 AML 관련된 전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경중을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자격증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경영진의 관심이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 교육 프로그램 또한 중요한 데 업무·직위별로 따로 구분된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FIU는 기존에 직원·담당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FIU가 내놓은 AML 교육운영방향에 따르면 직원 별 교육 권고시간을 직위·담당 업무 등을 고려해 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유 사장과 임직원들은 약 15만 평에 달하는 서울숲 곳곳의 낙엽과 나뭇가지, 쓰레기를 깨끗이 정리하며 창사 40주년의 의미와 고객과 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SKT는 그간 AI 기반으로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며 사회 문제 해결과 대한민국 AI 역량 강화에 앞장서 왔다.

김나리 기자 nari34@

가상자산 시장 한눈에… 똑똑한 투자 돕는 ‘업비트’

두나무 ‘UBCI’ 국내 최초 개발
초보자도 손쉽게 시장 파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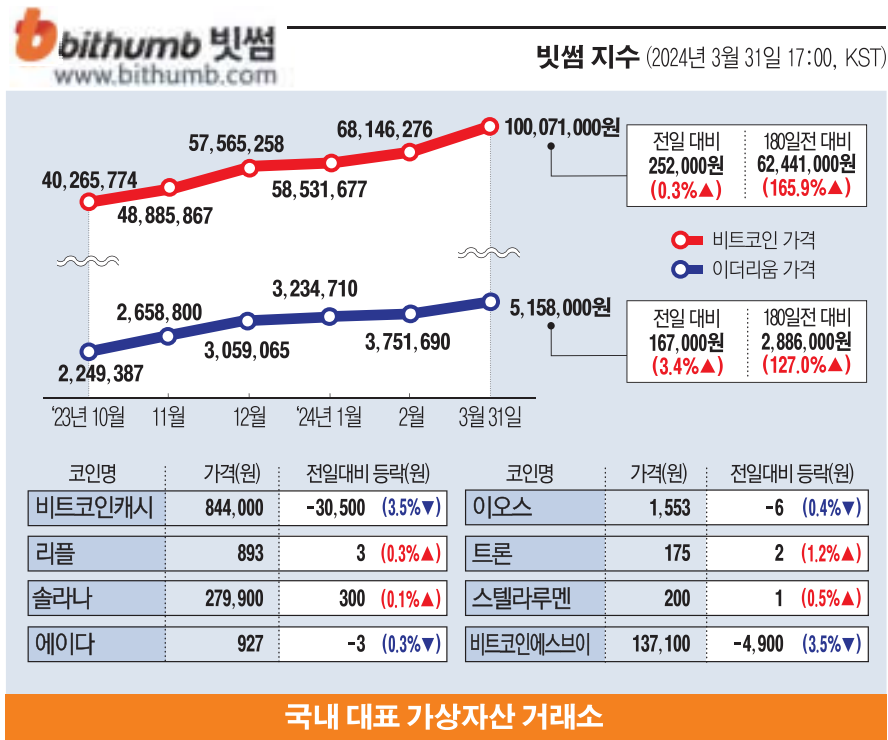
가상자산 시장에도 코스피(KOSPI)처럼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제공하는 가상자산지수 서비스 UBCI(Upbit Cryptocurrency Index)다. 초보 투자자도 UBCI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1일 업비트에 따르면 두나무는 2018년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자 가상자산지수서비스(UBCI)를 개발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상자산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이중 ‘업비트 시장지수(UBMI, Upbit Market Index)’는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거래 지원되는 모든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변동 및 시장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

표다. UBMI는 2017년 10월 1일 1000에서 시작해 3월 29일 기준 1만6199로 올랐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장 움직임을 보려면 업비트 알트코인지수(UBAI)를 보면 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수는 ‘BTC·ETH 듀오 전략 지수’다. BTC·ETH 듀오 지수는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BTC)과 2위인 이더리움(ETH)으로 구성된 전략 지수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월 1대1 비중으로 조정하는 동일 가중 방식을 적용한다.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BTC·ETH 듀오 지수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62.58%로, 같은 기간 업비트 시장지수(UBMI) 수익률(61.09%)보다 1.49% 포인트(p) 높았다. BTC·ETH 듀오 지수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후,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사는 기자 zion0304@



바이오 화두 ‘AI 신약개발’… 엔비디아도 출동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신약개발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신약개발에 적용되는 빈도가 늘면서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주요 사업인 생성형 AI를 앞세워 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 모델 ‘바이오네모(BioNeMo)’를 공개했다. 이 모델은 AI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유전자 코드의 여러 영역의 기능과 돌연변이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생성형 AI 모델 바이오네모 공개 DNA 서열 학습, 계능 기능 예측 유전자 돌연변이 영향 분석 도와 리커전파마에 650억원 투자 등 지난해부터 제약기업들과 협력

목표다.

유전체 서열을 학습해 약물 분자에 반응한 단백질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하고, RNA를 기반으로 세포의 기능을 결정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잠재적인

약물 후보와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DiffDock, 단일 아미노산 서열을 기반으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ESMFold 등 20개 이상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많은 양의 DNA 서열 데이터를 학습해 계능의 특정 영역의 기능을 예측하고 유전자 돌연변이 및 변이의 영향을 분석하는 DNABERT △단일 세포 RNA서열 분석 데이터에 대해 학습된 모델로 유전자 녹아웃(knockout)의 영향을 예측하고 신경, 혈액 세포 또는 근육 세포 등 특정 세포 유형 식별이 가능한

scBERT △단백질 상호 작용의 3D 구조를 예측해 가장 유망한 약물-단백질 조합을 식별해 약물 발견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quiDock 등이다.

엔비디아는 지난해부터 제약바이오, AI 신약개발 기업과 협력을 이어갔다. AI 신약 개발사 리커전파마슈티컬스에 50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투자했고, 8월에는 제네시스테라퓨틱스, 슈퍼루미날 메디슨 등 AI 신약개발 기업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노보노디스크를 소유한 노보노디스크 재단은 최근 새로운 의약품과 치료법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엔비디아의 AI 기술을 적용한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게피온이라는 이 슈퍼컴퓨터는 191개의 엔비디아 DGX H100 시스템(개별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된 대규모 엔비디아 DGX 슈퍼팟(SuperPOD)이다. 슈퍼팟은 덴마크 국립 AI 혁신센터에 보관돼 연구원들이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생성형 AI는 신약개발 가속화 시대를 열어주고, 디지털 수술, 디지털 생물학, 디지털 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획기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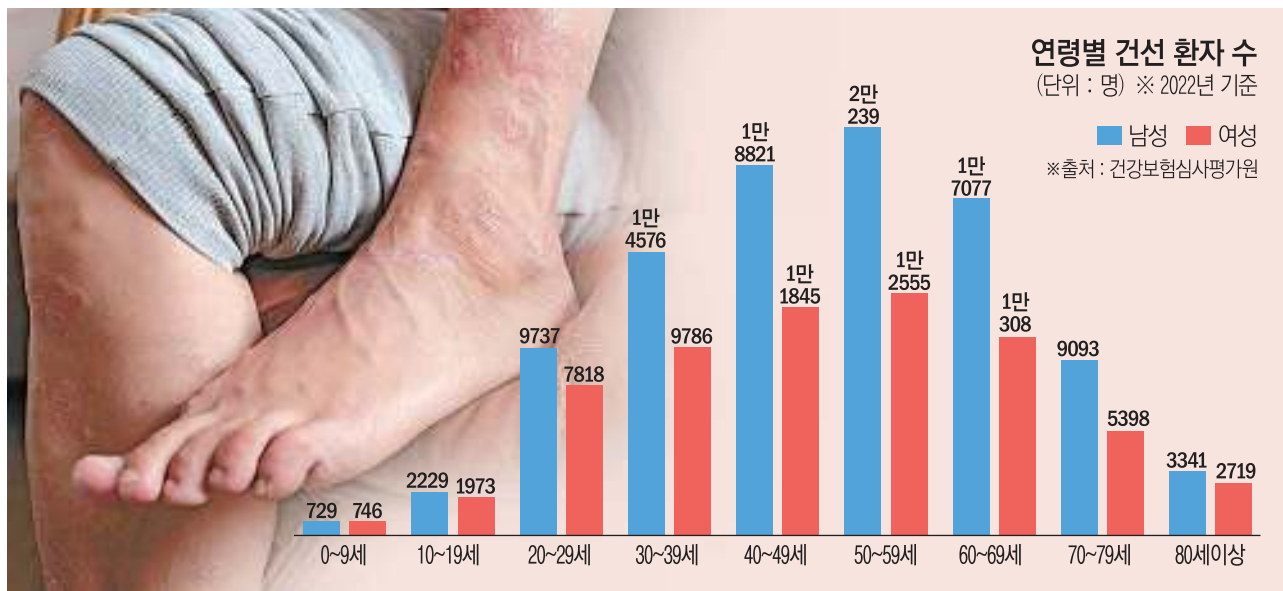
“결혼 애당초 단념, 삶 값아먹는 병”… 건선환자 사회적 보살핌 필요

발병하면 발진·염증·각질 나타나 유전·스트레스 등 요인 불분명해 젊은 환자들 다수 사회활동 위축 건보 자격 인정 조건도 까다로워

직장인 A(50대) 씨는 6살부터 평생 건선을 앓고있다. 그는 피부에 발생하는 병변만큼,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치료비와 타인의 시선이 환자들을 지치게 한다고 했다. A 씨는 “건선은 더러워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전염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선환자들은 치료 환경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건선은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지만, 환자들은 심각한 삶의 질 하락과 경제적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건선은 평생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 질환을 동반해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환자를 위한 공감도 필요하다.

건선이 발병하면 피부에 붉은 발진과 염증, 각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 피부 자극과 스트레스



스 등이 유발 요인으로 꼽힌다.

박은주 한림대성심병원 피부과 교수(대한건선학회 홍보이사)는 “피부에 나타나는 병변이 심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건선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들도 있다”며 “건선과 함께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선은 젊은 환자가 많아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꼽힌다. 얼굴, 팔, 다리

등 노출 부위의 피부 병변이 사회·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의하면 국내 건선 환자는 2018년 16만 4438명에서 2022년 15만 4399명으로 소폭 줄었다. 연령별로 50대 3만 2794명, 40대 3만 666명으로 각각 1, 2위였다. 젊은 층인 20~30대 환자도 각각 1만 7555명, 2만 4362명으로 적지 않다.

A 씨는 “학창 시절 신체검사를 하거나, 체육 시간에 옷을 벗을 수 없었다. 결혼 등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7살 때부터 건선을 앓아온 50대 직장인 B 씨는 “건선이 통증, 가려움, 피부 각질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받는 것이 힘들다. 가끔 ‘피부병 옮기는 환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마주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도 크다. 2017년 7월부터 중증 건선환자에게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환자가 많지 않다.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전신의 10% 이상 면적에 피부

병변이 있어야 한다. A 씨는 “생물학적 제제를 건강보험 적용 없이 사용하려면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며 “산정특례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 씨도 “건선은 물론, 그에 동반하는 관절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도 항상 관리해야 해 고생스럽다”고 말했다.

피부와 질환은 모두 경증이란 사회적 인식은 환자들을 더욱 위축되게 하다. B 씨는 “건선은 ‘삶을 값아먹는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생 고통스럽다”며 “피부와 질환자는 다른 질환에 비해 차별을 받는단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워 했다. A 씨는 “학교 교육을 통해 질환과 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생물학적 제제와 해양치유체험 보조요법 등 효과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학업과 직장생활 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삶의 질 지표’가 포함돼야 산정특례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치료 비용뿐 아니라, 건선 환자가 숨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사회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성주 기자 hsj@

의대 교수 오늘부터 진료 단축… “박 차관과는 대화 안하겠다”

의대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근무를 최소화한다. 정부를 향해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 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비대위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2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29일 4차 총회에서 4월 첫째 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쉬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22일 3차 총회에서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였는데, 4월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피로 누적 “박민수 차관 언론 대응서 제외를”

터는 진료를 더욱 축소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박 차관을 제외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의·정 대화의 조건을 추가했다. 박 차관의 언행이 의사들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의사 단체들은 그간 의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해 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단체들이 대화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해 정부와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장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현재 의대 정원 및 필수 의료 정책과 관련해 비대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각각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방 위원장은 “전교협과 비대위는 잘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회장이 이번엔 선출됐으니 대화를 해 봐야겠지만, 의협과 교수단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처분한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역시 2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

이라며 철회는 물론, 인원 조정도 불가능하다고 뺑기 바빴다. 한성주 기자 hsj@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한성크린텍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양엔바이오주



Water Solution



E CLEAN WATER

‘주총 끝’ 식품업계… 올해 성장 키워드는 ‘글로벌·신사업’

CJ제일제당 해외·뉴웰니스 확장
풀무원 “3년내 매출 4조원 달성”
농심, 美시장 기반 점유율 확대
오뚜기, 태양광발전 신사업 추진

국내 주요 식품사의 정기 주주총회(주총)가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사업 확장’과 ‘신사업’을 꼽을 수 있다. 식품업계는 성장 한계에 직면한 내수 시장 대신 K푸드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수익성 확보에 나선다는 포석이다.

3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풀무원, 오리온 등 주요 식품사 대표이사는 올해 주총에서 글로벌 사업 확대를 외치며 해외 사업 확장 및 진출 계획을 밝혔다.

먼저 CJ제일제당은 초격차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글로벌 사업 가속화와 뉴 웰니스(Wellness, 웰빙·행복·건강)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글로벌 전략제품으로 만두 외 대형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유럽·호주 등 메인스트림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바이오 사업에서는 고수익 제품인 트립토판, 핵산, 스페셜티 아미노산 중심의 질적 성장을 지속 추진,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사업도 강

2024년 주총서 밝힌 식품업계 성장 목표 및 신사업 계획

※ 출처: 각 사

CJ제일제당	글로벌 사업 가속화, 뉴 웰니스 가치 창출, 바이오 사업 강화
풀무원	2027년까지 매출 4조원 달성, 미·중·일 터어라운드, 유럽까지 확대
농심	글로벌 사업 강화, 미래 준비, 수익구조 고도화
매일유업	수익성 기반 국내 경쟁력 강화, 해외사업 적극 육성, 주주가치 제고
롯데칠성음료	‘식품용 액화탄산가스 제조업’ 사업목적 추가
롯데웰푸드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역제공업’ 사업목적 추가
오뚜기	‘태양광 발전 사업’ 사업목적 추가
CJ프레시웨이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목적 추가



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올해 창사 40주년을 맞은 풀무원은 28일 열린 주총에서 ‘글로벌 넘버원(NO.1) 지속가능식품기업’으로의 성장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풀무원은 2027년까지 매출 4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글로벌 사업은 지속가능식품과 K푸드를 중심으로 미·중·일 3대 거점지역에서 성공적으로 터어라운드(실적상승) 시키고 동남아, 캐나다, 유럽까지 입지를 넓혀갈 계획이다.

K-라면 수출의 선두주자인 농심도 올해 경영 지점을 ‘전심전력’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중점 과제로 △글로벌 사업 강화 △미래 준비 △수익구조 고도화를 제시했다.

이병학 농심 대표는 22일 열린 주총에

서 “미국 시장에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글로벌 넘버1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성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재무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업계 대표기업인 매일유업은 내수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해외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29일 열린 주총에서 “급격히 변화한 경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수익성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

서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가치 제고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신사업 추진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롯데칠성음료는 20일 열린 주총에서 정관상 사업목적에 ‘식품용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을 추가했다. 올해 내로 주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를 다시 모으는 기술을 개발하고 음료 생산에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21일 주총에서 ‘연구개발업 및 연구용역제공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오뚜기는 자체 생산한 잉여 전력 일부를 판매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CJ프레시웨이는 사업목적으로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암초 만난 켈리 도심물류센터… ‘퀵커머스’ 론칭 제동

대치동 MFC 설치계약 최종 불발
“강남 내 4인 가족 많은 지역 우선”
매력적 입지 찾는 데 시일 걸릴 듯

새벽배송업체 켈리가 신사업 ‘퀵커머스(Quick Commerce)’를 위해 준비하던 도심 내 마이크로풀필먼트센터(Micro Fulfillment Center·MFC) 선정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켈리의 퀵커머스 론칭 시기도 늦춰질 전망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켈리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MFC 설치 계약서에 최종 사인하지 않았다. MFC는 도심 내 상품 보관창고 겸 물류센터다.

퀵커머스는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포장, 배달 라이더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이라 MFC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켈리는 올해 1월부터 강남구 대치동에 MFC 설치를 위한 계약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계약이 최종 불발되면서 켈리는 다른 지역 입지를 찾고 있다. 강남구, 마포구 등 2030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4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검토 대상이다.

켈리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서 (MFC 설치 장소를) 다시 찾고 있다”면서 “켈리 새벽배송을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선정) 될 텐데, 30대·4인 가족 구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켈리는 작년 말 신사업으로 퀵커머스를

낙점하고 MFC 설치 지역 물색, 배달대행업체 제휴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해왔다. 켈리는 배달 파트너로 ‘부릉’(메쉬코리아)을 택했다.

27일 주주총회에서도 신규 사업 목적에 퀵커머스 사업을 위한 ‘위치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하지만 강남구 대치동 MFC 설치가 불발되면서, 퀵커머스 시작도 늦어지게 됐다. 켈리는 당초 이르면 1분기 퀵커머스 론칭을 검토했었다.

업계는 켈리가 매력적인 MFC 입지를 찾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 퀵커머스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서 맞춤형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설령 찾는다 해도

임대가격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기존 공간을 MFC로 활용할 경우 용도변경도 난제다. 이외에 안전과 교통 문제로 MFC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 등도 걸림돌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MFC 설치 규제를 푼 건 호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법령상에 MFC 개념을 도입했고,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MFC 설치도 허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마포 등 서울 핵심상권 설치시 임대료가 관건”이라면서도 “정부의 MFC 규제 해제는 사업자로써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편의점서 금 사세요”… CU ‘카드형 골드’ 출시

0.5g·1g·1.87g 총 10종 한정판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 및 인증한 ‘카드형 골드’ 10종을 4월 1일부터 한정 수량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카드형 골드는 다양한 중량의 골드바를 카드 형태 케이스로 제작해 소장성을 높인 상품이다. 금값이 크게 오른 최근에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0.1~1g대의 저중량 카드형 미니 골드바가 인기가 높다.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1g 이하의 저중량 골드바 판매량의 경우 지난해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판매량이 68% 이상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이 MZ세대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판매 채널에서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CU는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0.5g, 1g, 1.87g 세 가지 종류의 카드형 골드 10종을 판매한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점포에 비치된 QR코드로 접속해 결제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에 배송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자체 커머스 앱 포켓 CU의 홈 배송 탭에서 만나볼 수 있다. 모든 상품에는 국내 유일의 KRX 금시장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순도 99.99%를 보증하는 정품 보증서와 고급 케이스가 동봉된다. CU는 내달 30일까지 카드형 골드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CU 점포를 방문하여 해당 상품을 구매한 후 홈 배송 주문서를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문현호 기자 m2h@



신세계에서 만나는 여섯 거장의 세계 신세계백화점은 5월 1일까지 청담 본더샵 신세계갤러리에서 전시회 ‘목상’을 열고 김시영·박서보·윤형근·이배·정창섭·최명영을 포함한 여섯 작가의 작품 총 76점을 소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시 목상은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통해 관객들이 삶 본질의 의미를 찾아가고 스스로 내면을 탐험할 수 있는 여정을 담았다. 또한 이번 전시는 프랑스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 ‘리에거(Liaigre)’와 협업, 오킨 목재와 부드러운 비정형적인 형태의 흑자가 현대적인 감각의 리에거 가구와 어우러져 공간의 미학까지 연출했다는 평이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K-패션 세계화 돕는 ‘더현대 글로벌’ 론칭

현대백, 현지 리테일과 맞손

현대백화점이 해외 현지 리테일과 손잡고 한국 토종 패션 브랜드와 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백화점은 경쟁력 있는 한국 토종 브랜드를 소싱해 해외 유명 리테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신개념 K콘텐츠 수출 플랫폼 ‘더현대 글로벌’을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더현대 글로벌은 현대백화점이 해외 시장에서 선보일 국내 브랜드 및 콘텐츠를 발굴한다. 특히 통관을 포함해 내륙 운송과 창고 운영, 재고 관리 등 상품 수출입 및 판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매장 위치, 운영 방식 등을 해외 유명 리테일과 직접 협상하는 역할도 맡는다.

더현대 글로벌은 매장 대부분을 경쟁력 있는 토종 중소·중견 브랜드로 채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브랜드는 공간 대여, 인테리어, 별도 판매 수수료 계약 체결 등의 부담을 덜게 돼 직접 해외 리테일에 입점하는 것보다 3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글로벌 리테일 입장에서든 현대백화점의 검증은 거친 신뢰성 있는 브랜드로 MD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

더현대 글로벌의 첫 번째 무대는 일본이다.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일본 대형 유통 그룹 파르코와 더현대 글로벌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53년 설립된 파르코는 시부야점 등 총 1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 협약에 따라 우선 5월 시부야점에서 더현대 글로벌의 1호 팝업스토어, 노이즈 매장을 연다. 이후 이비스, 마뎡키, 미스치프 등 11개 브랜드의 단독 팝업스토어를 총 660㎡(약 200평) 규모로 차례대로 운영한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날 태국 대표 리테일 그룹 시암 피와트도 K콘텐츠 전문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현호 기자 m2h@



더현대 글로벌과 첫 제휴해 5월 국내 주요 패션 브랜드의 팝업스토어를 단독으로 선보일 일본 파르코 시부야점 전경.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현장 누비는 CCO 정현옥 “소비자 보호 ‘1등 우리’ 만들 것”

★‘은행의 별’을 말한다

④ 정현옥 우리은행 부행장

“소비자 보호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이자 부행장으로서 목표는 은행권에서 ‘소비자 보호’로 우리은행이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부행장)은 최근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한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장 △열정 △1등을 강조했다.

정 부행장은 1992년 입행한 이후 31년 만인 지난해 말 부행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고객 신뢰를 얻어야 은행도 성장할 수 있기에 올해 그룹장으로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장 중심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목표는 ‘소비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 정 부행장이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으로서 세운 올해 목표는 ‘현장 친화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명가로의 도약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 중 정 부행장이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직접 영업 현장을 다니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전반에 대해 소속장을 교육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현장 교육’이다. 1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38개 영업본부별 정 부행장이 전부 방문해 본부별 민원 사례를 파악하고, 상품 판매시 금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그는 “앞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완전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1등 소비자보호그룹’ 목표를 이를 계획이다. 타행이 보고 배울 만한 우리은행만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이미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부행장)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현장 친화적인 시스템 고도화 작업 ‘금융 소비자 명가로의 도약’ 목표 ‘현장 중심 내부통제 활동도 강화’

달성한 사례도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2월 말 금융권 최초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내놔다. 보이스피싱 예방앱(리베라)을 설치하거나 우리은행 모바일 뱅킹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용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부부와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1차 오픈한데 이어 올해 2월 말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정

식 오픈했다. 시스템은 주요 민원 키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으로 우리은행의 민원이 접수되면 우리은행 민원관리시스템으로도 자동 접수돼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정 부행장은 “영업현장에서 금소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고객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완벽히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과제”라며 “우리 고객이 불편함이 없어야 민원이 생기지 않기에 ‘민원 제로’ 은행을 만들기 위해 실시간 민원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1번의 1등’…“고객의 믿음 얻은 결과” = 정 부행장은 항상 영업 현장과 가까이 있었다. 그는 입행 초기부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기회를 얻었다. 남성 행원

여신·외환·대부 등 다양한 경험 지점장 등 영업평가서 1등 11번 고객에 필요정보·신뢰 함께 제공

의 업무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여신·외환·대부 업무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의 업무 능력을 본 후, 기회를 열어준 상사의 덕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 부행장은 “당시 ‘남성은 외환·대부, 여성은 예금’이라는 식으로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자연스러웠지만, 저를 지켜본 지점장이 ‘너는 잘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많은 기회를 줬다”며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도

정현옥 우리은행 부행장 프로필

1992년	우리은행 입행
2011년 12월	우리은행 금융감독원지점 지점장
2014년 12월	우리은행 반포역지점 지점장
2016년 12월	우리은행 대치남지점 지점장
2018년 12월	우리은행 삼성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
2020년 12월	우리은행 남역삼동영업그룹 본부장
2021년 12월	강남영업본부 영업본부장
2023년 3월	투자상품전략그룹 그룹장
2023년 12월	금융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부행장)



했다. 우리은행 금융감독원·반포역·대치남지점의 지점장, 삼성동금융센터 센터장을 거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쌓였다. 영업점 내 지점장실 안에 있기보다 고객들과 접촉하려 했던 영향이 컸다. 창구로 나와 고객에게 인사를 하고 자녀와 손주의 이야기를 하는 등 소통에 집중했다. 정 부행장은 “우리은행”이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돕는 가족과 같다는 의미에서 ‘우리 지점장’ ‘우리 직원’이라고 표현하는 고객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 같은 노력의 성과는 분명했다. 정 부행장이 지점장과 센터장을 지낸 9년간, 반기마다 시행하는 영업 평가에서 1등을 총 8번했다. 남역삼동영업그룹과 강남영업본부에서 본부장을 맡았던 시절에는 1등을 3번 더 했다.

정 부행장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고객이 있다면, 본점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좋은 위치를 함께 고민했다”며 “고객을 밀착 케어하며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했다. 이후 고객에게 ‘역시 거래는 우리은행과 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떠올렸다.

유하영 기자 haha@

외국인, 1분기 유가증권 15조7700억 순매수 ‘최대’… 투자 수익률 보니

‘8만전자·밸류업’에 투자 외국인 수익률 ‘눈에 띄네’ 개미 많이 산 종목은 ‘하락’

外人, 반도체 등 대형주 대거 매입
삼성전자 5조5024억 사들여 ‘최대’
현대차·금융지주 등 비중도 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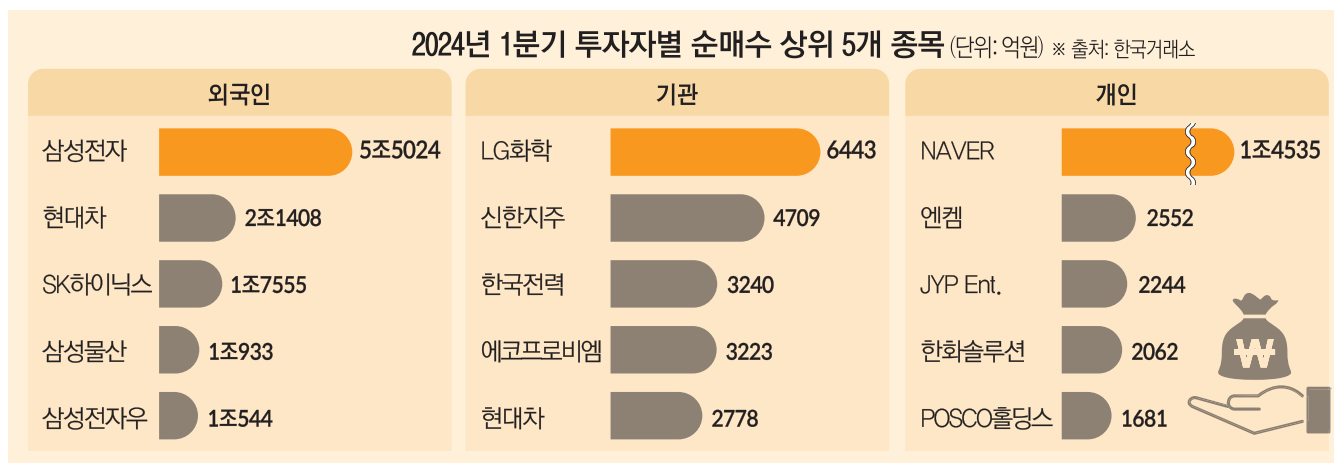
개인, 엔터·조선 등 다양한 종목 투자
네이버·엔캅·JYP 엔터 등 큰 관심

올해 1분기 국내 증시에서 수익률이 양호한 종목을 가장 많이 사들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자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는 주가가 내림세를 보인 종목을 대거 순매수하며 수익성이 악화했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1~3월 유가증권시장에서 15조77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는 거래

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이 중 외국인 최대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로, 액수는 5조5024억 원에 달했다.

이어현대차(2조1408억 원)와SK하이닉스(1조7555억 원), 삼성물산(1조933억 원), 삼성전자우(1조544억 원)가상위 5위권을 차지했다. KB금융(6649억 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5212억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056억 원), 기아(3983억 원), 삼성생명(3623억 원)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훈풍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를 볼만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했다. 삼성전자는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삼



성전자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납품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상승세를 탔다. 이달에만 12.26% 상승률을 나타내며 ‘8만 전자’ 군거기에 들어갔다.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에 HBM3을 독점 공급하는 ‘엔비디아 생태계’를 자랑하며 연초 이후 29.33% 급등했다.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도 밸류업 기대감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연초 이후 14.5% 올랐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57배였다. 금융주도 대표적 저PBR 부문으로 꼽히며 순매수 규모를 불렀다. KB금융을 비롯해 우리금융지주

3518억 원, 하나금융지주 2726억 원 등이 유입됐다. 주가도 강세를 나타내며 KRX 300 금융 수익률은 16.92%를 기록했다.

신한지주를 비롯한 하나금융지주(2279억 원), 메리츠금융지주(1279억 원) 등 금융주 비중도 늘렸다. 또 다른 밸류업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LG(1813억 원), SK(1218억 원) 등 지주사 주식도 매입했다.

개인은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재생에너지, 조선, 유통 등 다양한 업계의 종목을 고루 샀다. 최대 규모 순매수 종목은 NAVER로, 올해 들어 1조4535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코스닥 새내기 종목인 에이피알도 순매수액 3307억 원으로 순매수 2위에 올랐다.

엔캅(2552억 원)과 JYP Ent.(2244억 원), 한화솔루션(2062억 원), POSCO홀딩스(1681억 원)는 그 뒤를 이었다. HPSP(1582억 원), LG화학(1463억 원), SK이노베이션(1367억 원), 엔젤로보틱스(1367억 원)도 개인 관심을 받았다. 현대미포조선(1173억 원)과 카카오페이(899억 원), 호텔신라(846억 원), 현대오트메버(757억 원) 등도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윤혜원 기자 hwyoon@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 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하나은행, 자율배상금 첫 지급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 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하나는 행이 첫 자율배상금 지급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는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3월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1일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후 18일 만에 첫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하나는은행은 투자자별 개별요소의 객관적 사실 확인을 거쳐 합리적인 배상비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잇따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대다수 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신속한 배상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일부 투자자들과 배상금 지급에 나섰지만, 원활한 자율배상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 23~50%, 투자자 요인 $\pm 45\%$ 포인트(p), 기타 조정 $\pm 10\%$ p를 합산해 결정한다. 은행은 기본배상비율 20~40%에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른 가중비율 10%가 더해진다. 시장에서 예상 비율을 40%로 보는 이유기도 하다. 투자자가 금융 취약계층인지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 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최대 45%가 가감된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기타 조정 요인이 추가로 반영돼 10%p 가감될 수 있다.

각 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별로

홍콩 ELS 투자 손실 배상 기준 ※출처: 금융감독원



은행별 홍콩 ELS 자율배상 추진 방안 ※출처: 각 사

KB국민은행	자율조정협의회 설치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처리 지원	우리은행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투자자와 접촉해 자율조정 추진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자율조정협의회 설치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처리 지원
하나은행	자율배상위원회 및 자율배상 지원팀 신설, 3월 29일 은행권 첫 일부 투자자와 합의해 배상금 지급	SC제일은행	자율배상위원회 구성, 고객 배상 절차 착수

국민·신한銀 등 자율배상 결의 자율조정협의회 설치, 신속 배상

투자자는 “손실액 100%” 요구 은행·고객 입장차 안 좁혀지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집단소송

일일이 배상 비율을 산정한 뒤 개별 통보하면 가입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고객이 배상 비율에 합의하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동의서 등 서류 절차를 거쳐 배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다만, 고객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관건은 투자자가 은행 측에서 제시한 배상 비율을 수용할지 여부다. 현재 투자자들로 구성된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의 경우 손실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00%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김경근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개 주요 은행의 배상액은 1조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민은행

배상액이 약 99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은 2870억 원 △농협은행은 2590억 원 △하나은행 2570억 원 △제일은행은 1500억 원을 배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홍콩 H지수 평균 1만1096p 대비 지난달 26일 5768p까지 낮아져 하락률 48%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은행과 제일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각각 약 3조 원, 34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순이익 대비 비중은 국민은행이 33%, 제일은행이 44%로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이달 불안전 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과징금이나 최고경영자(CEO) 책임 등을 결정하기 전에 자율배상 지급을 원활히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을 하면 제재 감경 요소로 고려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정할 때 배상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손희정 기자 sonhj1220@

중견기업에 ‘11조+ α’ 금융지원

오늘부터 신사업진출 희망기업 대상 최대 1500억 1%p 우대금리 대출도 ‘유동성 위기’ 中企 신속지원 확대

신산업 진출을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 11조 원 이상의 은행권 금융지원프로그램이 1일부터 개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총 65조 원 규모의 신성장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첨단제조·자동차,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284개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 원까지 1%p포인트(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5조 원 규모의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营业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 대출 중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

대감면 폭은 2%p로 제한)해준다. 단, 지난해 실시한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른 대출원금 감면 프로그램과 중복 이용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 해당 은행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은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기업은 현재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달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은행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고자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 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이달부터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신청한 기업에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돕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지원 방안’이 현장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는 한편, 지원실적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김유준(왼쪽부터) 서브원 상무, 문병규 법무법인 민주 파트너 변호사,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안우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 김효권 법무법인 파스트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우리은행

우리銀 ‘원비즈플라자’서 외국어 공부도…

파고다·서브원 등과 상생업무 협약
중견·중소기업 콘텐츠·서비스 강화
상속·중여·부동산 상담 등 확대

우리은행이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의 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우리은행은 △파고다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파스트 △서브원과 ‘원비즈플라자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원비즈플라자는 우리은행이 2022년 9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이다. 중견·중소기업들이 별도의 플랫폼 사용료 없이 회원사로 등록해 실시간으로 구매·공급·금융 등 다양한 솔루션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을 위해 콘텐츠

츠 영역을 크게 확장했다.

먼저 파고다대학원의 외국어 및 업무 관련 교육 콘텐츠를 탑재해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법률상담과 기업회계 관리용 기장대리, 세무신고 컨설팅, 상속중여·부동산 상담 등 기업 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도 추가한다.

서브원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마켓에서는 제품생산에 꼭 필요한 소모성 자재와 안전용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임직원 복지몰도 회원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해 우수한 가전제품 등을 임직원에게 특가에 판매한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원비즈플라자가 공급망금융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상생 플랫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저축銀·새마을금고 현장검사 이달 돌입

금감원, 건전성 집중 모니터링
8일부터 금고 공동검사 첫 실시

금융감독원이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이달 현장검사에 나선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연체율도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도 연체율이 최근 7%대까지 치솟으며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살피는 등 건전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현장검사를 이달 중 진행한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2022년 말 1조5622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5559억 원의 순손실

로 돌아섰다. 1년 새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이 증발한 셈이다.

올해도 상황은 좋지 않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기업대출 연체율도 급증한 영향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포인트(p) 상승했다. 2015년 12월(9.2%)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8.02%로, 전년 말(2.9%)보다 5.12% 증가했다. PF대출 연체율도 6.94%로, 전년 말(2.05%)보다 4.89%p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서도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연체율이 나오는 대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체율 상승세가 심상

치 않다.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였지만, 올해 1월 기준 6%대, 2월엔 7%대까지 추가 상승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 바 있다. 이번 공동 현장검사는 당시 발표 이후 이뤄지는 첫 공동 검사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 등 관련 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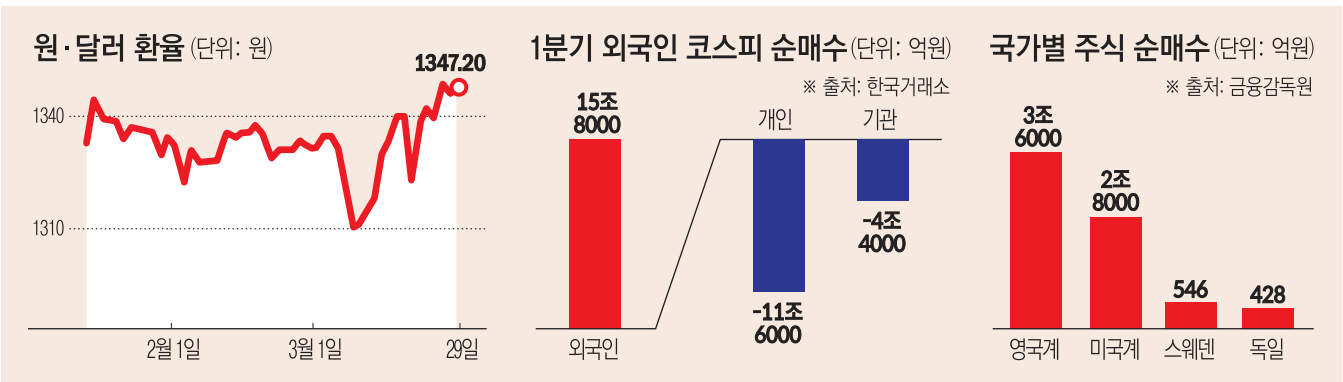
이재영 기자 lly0403@

“韓 경제 문제없다”… 外人, 달러 강세에도 ‘바이 코리아’

유럽·中 경기 우려에 달러 강세 韓,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굳건 외국인 지난달 4.4조 매수행렬 英자금 매수 1위… 대형주 집중 “WGBI·MSCI지수 편입 필요”

원·달러 환율이 뛰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중 연고점(1353원)을 갈아치우는 등 우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곤 한다. 달러 강세·원화 약세 국면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선 가만히 앉아서 달러로 환산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는 꼴이어서, 환차손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챙겨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오히려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올해 주식을 순매도(매수보다 매도가 많은 것)하는 와중에 나 홀로 순매수하며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그것도 두자릿 수 조 단위다. 외국인들은 어떤 이유로 한국 주식을 사고 있고,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환율 오르는데 주식 사는 외국인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분기 코스피 시장에서 15조 80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이 기간 개인은 11조 6000억 원, 기관은 4조 4000억 원 넘는 순매도를 기록한 것과 정반대 행보다. 3월 한 달 동안에도 외국인은 4조 40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개인은 6조 원가량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화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진 대신 미국 경제지표는 호황을 가리키면서 유로화나 위안화 대비 달러가 나 홀로 초강세가 됐고, 그 결과 원화가 약세로 방향을 튼 것이지 원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강달러 요인이다.

한국 펀더멘털은 굳건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수출금액지수는 124.24(2015년 100 기준)로 1년 전보다 3.7%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컴퓨터·전자·광학기기(35.9%)가 상승을 주도했다.

금융감독원의 2월 국가별 주식 순매수 집계치를 보면 1, 2위는 영국계와 미국계 자금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각각 한국 주식 3조 6000억 원, 2조 8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다음으로 스웨덴(546억 원), 독일(428억 원) 등 순이었다. 특히 영국이 두 달 연속 순매수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외국인 중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보유(외국인 주식투자 중 미국 비중 10.1%)하고 있는 나라인 동시에 노르웨이·싱가포르 등과 함께 연가금과 펀드 같은 장기성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행보가 환율 측면에서는 이례적이지만, 펀더멘털을 보면 당연하다고 얘기한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4개월간 외국인 순매수는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며 “지난해 일본 증시의 강세처럼 외국인은 한국에서 유사한 상황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CI선진지수 편입 등 추가 흡입요인 있어·외국인들은 3월 들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삼성물산·KB금융·우리금융지주·HD현대일렉트릭·현대모비스·LIG넥스원 등 국내 반도체·자동차·금융

관련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소유했다. 동시에 네이버와 포스코홀딩스, 기아, LG화학, 삼성SDI, 셀트리온, 오리온, LG 등 그간 사모았던 주식은 내다 팔았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밸류업 업종 매수세가 소강 상태지만, 반도체 ‘빅2’(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매수는 여전히 강하다”면서 “최근에는 방산, 엔터, 게임 등 새로운 섹터를 담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을 붙잡아둘 추가적인 ‘풀 팩터(Pull factor·흡인요인)’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세계국채지수(WGBI)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등을 말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국내 증시에 많게는 360억 달러(약 48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달러화 강세 폭이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고, 경기 전망도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든 변덕을 부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환율 상승률이 3% 이상인 달의 코스피 하락 확률은 60%였다. 4% 이상이면 이 확률이 80%로 뛰었고, 5% 넘으면 100%였다.

박상인 기자 si2020@

“미래 고객 MZ 잡아라”… ‘부캐’ 키우는 증권사들

〈부캐릭터〉

친숙한 브랜드로 이미지 제고 NH ‘N2’·KB ‘깨비’ 내세워

증권사들이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친근한 이미지의 ‘부캐(서브캐릭터)’를 만드는 등 이미지 탈바꿈을 위해 애쓰고 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브랜드 닉네임으로 ‘N2(엔투)’를 만들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N2’는 NH투자증권을 친

근하게 줄여부르는 별명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열린 금융투자인 마라톤대회에서 ‘N2’ 로고가 박힌 상품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직 상표권 등록 등 공식적으로 브랜드 출시는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르면 다음 달 관련 서비스나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사가 부캐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KB증권은 2022년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인 ‘깨비증권’을 선보였다. 깨비증권은 KB(케이비)를 친숙하고 편안하게 줄인 별명이다.

증권사들이 투자 장벽을 허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는 미래 투자자를 확보

하기 위해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상장법인 주식 개인소유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6%로 3년 전과 비교하면 8.9%포인트(p) 올랐다. 2030세대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기존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4050세대의 비중은 감소했다. 특히 증권사는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업금융(IB) 수

익이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 수익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2030세대 투자자가 새로운 먹거리”라며 “이들에게 어느 증권사가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가는지가 미래 고객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나주 세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2. 보상업무 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보상전문기관)

3. 사업 개요

■ 사업의 명칭 : 나주 세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 사업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오봉리 일원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 04. 01.(월) ~ 2024. 04. 15.(월)

5. 열람장소

가.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2층

나. 인터넷 홈페이지 - 한국부동산원 : http://www.reb.or.kr (알림마당-보상정보-보상계획 공고)

6. 보상시기 및 절차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등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사·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사·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소유자 추천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부동산원 호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익사업 명칭 : 나주 세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면적 단위 : m)

구분	소재지	면적 지분	면적 지분	지목	면적 면적	소유 지분	소유자명	관계인명	비고
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71-4	571-4	도로	351	6	1/1	국·(설)법	
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29-6	429-6	도로	396	184	1/1	국·(설)법	
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29-3	429-3	도로	555	419	1/1	국·(설)법	
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7-3	417-3	도로	231	221	1/1	국·(설)법	
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6-3	416-3	도로	55	55	1/1	국·(설)법	
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6-4	416-4	도로	77	77	1/1	국·(설)법	
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2	344-20	도로	2,386	45	1/1	국·(설)법	
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3	344-21	도로	3,016	86	1/1	국·(설)법	
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46-3	546-3	구거	3,736	1,109	1/1	국·(설)법	
1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4	344-22	도로	2,592	173	1/1	국·(설)법	
1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5	344-23	도로	623	62	1/1	국·(설)법	
1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6	344-24	도로	1,483	38	1/1	국·(설)법	
1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6	344-25	도로	1,483	310	1/1	국·(설)법	
1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2-4	412-4	도로	396	74	1/1	국·(설)법	
1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4-2	414-2	도로	132	45	1/1	국·(설)법	
1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46-2	546-2	구거	5,370	72	1/1	국·(설)법	
1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8	344-18	도로	10	10	1/1	국·(설)법	
1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9	344-19	도로	465	465	1/1	국·(설)법	
1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71-1	571-1	도로	722	378	1/1	국·(설)법	
1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47-3	547-3	도로	263	263	1/1	국·(설)법	
2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2-2	412-2	도로	189	189	1/1	국·(설)법	
2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2-3	412-3	도로	17	9	1/1	국·(설)법	
2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9-2	409-2	도로	73	73	1/1	국·(설)법	
2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9-3	409-3	도로	23	18	1/1	국·(설)법	
2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0-1	410-5	도로	595	76	1/1	국·(설)법	
2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71-11	571-16	도로	78	45	1/1	국·(설)법	
2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1	3-5	도로	1,185	980	1/1	국·(설)법	
2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	4-1	도로	582	582	1/1	국·(설)법	
2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6-4	6-12	도로	216	74	1/1	국·(설)법	
2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1	5-8	도로	388	721	1/1	국·(설)법	
3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2-2	2-3	도로	383	7	1/1	국·(설)법	
3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3	3-3	도로	3	3	1/1	국·(설)법	
3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2-1	2-4	도로	43	20	1/1	국·(설)법	
3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4	5-4	도로	69	69	1/1	국·(설)법	
3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2-2	2-5	도로	357	1	1/1	국·(설)법	
3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2-2	2-6	도로	357	27	1/1	국·(설)법	
3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7-6	7-19	전	285	253	1/1	국·(설)법	
3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7-4	7-17	전	655	508	1/1	국·(설)법	
3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7-13	7-23	전	254	200	1/1	국·(설)법	
3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7-14	7-24	전	74	40	1/1	국·(설)법	
3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7-1	7-1	전	370	370	1/1	국·(설)법	
4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71-15	571-15	도로	492	248	1/1	국·(설)법	
4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7-1	7-15	전	1,283	474	1/1	국·(설)법	
4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89	589-6	전	1,825	1,825	1/1	국·(설)법	
4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89-6	589-6	전	1,825	1,825	1/1	국·(설)법	
4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17-2	417-2	도로	146	130	1/1	국·(설)법	
4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3-1	403-1	도로	30	1	1/1	국·(설)법	
4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571-2	571-2	도로	163	43	1/1	국·(설)법	
4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4-7	404-7	도로	41	41	1/1	국·(설)법	
4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4-5	404-5	도로	1,032	474	1/1	국·(설)법	
4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4-2	404-2	도로	37	4	1/1	국·(설)법	
5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4-17	344-26	전	1,659	1,145	1/1	국·(설)법	
5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4	3-4	도로	160	160	1/1	국·(설)법	
5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2	3-2	도로	69	69	1/1	국·(설)법	
5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3	4-3	도로	7	7	1/1	국·(설)법	
5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7-3	407-3	도로	122	11	1/1	국·(설)법	
5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6-4	406-4	도로	23	23	1/1	국·(설)법	
5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7-2	407-2	도로	99	8	1/1	국·(설)법	
5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406-3	406-3	도로	23	23	1/1	국·(설)법	
5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벽산리	389-4	389-4	도로	297	10	1/1	국·(설)법	

12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44-22

244-22

전

11

11

1/1

국·(설)법

12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44-4

244-4

전

460

325

1/1

국·(설)법

12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44-3

244-3

전

2,343

546

1/1

국·(설)법

12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77

236-77

전

425

134

1/1

국·(설)법

12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30

236-30

전

5,036

2,484

1/1

국·(설)법

12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29

236-34

전

2,569

140

1/1

국·(설)법

12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26

236-83

과수원

4,264

892

1/1

국·(설)법

나·(농림축산식품부)

13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15

236-84

과수원

6,782

123

1/1

국·(설)법

13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15

236-85

과수원

6,782

1,235

1/1

국·(설)법

13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16

236-87

과수원

2,648

1,240

1/1

국·(설)법

나·(농림축산식품부)

13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47

236-47

전

26

26

1/1

국·(설)법

13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46

236-46

전

15

15

1/1

국·(설)법

13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13

236-88

전

4,330

60

1/1

국·(설)법

13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739-2

739-2

도로

123

123

1/1

국·(설)법

13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46

236-87

전

34

29

1/1

국·(설)법

13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76

236-76

도로

14

14

1/1

국·(설)법

13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99

236-99

전

375

375

1/1

국·(설)법

14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739

739

도로

1,391

219

1/1

국·(설)법

14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

236

전

69

69

1/1

국·(설)법

14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2

236-2

도로

89

89

1/1

국·(설)법

14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8

236-8

전

1,622

786

1/1

국·(설)법

14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7-1

237-1

전

255

1

1/1

국·(설)법

14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727-2

727-237

전

4,677

1,348

1/1

국·(설)법

산·(농림축산식품부)

14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44-2

244-25

전

4,331

2,513

1/1

국·(설)법

산·(농림축산식품부)

14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45-2

245-2

전

213

213

1/1

국·(설)법

14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44-16

244-16

전

893

192

1/1

국·(설)법

14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75

236-75

전

110

2

1/1

국·(설)법

150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23

236-99

전

1,260

126

1/1

국·(설)법

151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23

236-91

전

1,260

49

1/1

국·(설)법

152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17

236-89

전

2,139

112

1/1

국·(설)법

153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48

236-88

전

162

85

1/1

국·(설)법

15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52

236-52

전

295

235

1/1

국·(설)법

155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11

236-11

전

172

77

1/1

국·(설)법

156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3

236-3

도로

3,451

1,480

1/1

국·(설)법

157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53

236-53

전

611

29

1/1

국·(설)법

158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36-10

236-82

전

747

32

1/1

국·(설)법

산·(농림축산식품부)

159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739-3

739-3

전

90

9

1/1

국·(설)법

16

GTX A노선 개통 효과?...역세권 아파트 경매시장 후끈

파주·고양 등 응찰자 몰리며
낙찰가율도 100% 안팎 기록
운정~서울역 구간 올해말 개통
역세권지역 아파트값도 오름세

경매시장, 매매시장 선행지표
지역부동산 활성화 이끌지 관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앞으로 개통을 앞둔 경기지역 내 역세권 아파트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하고 있지만, GTX 역세권 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은 역주행 중인 셈이다. 아파트 경매시장은 매매시장의 선행지표로 읽히는 만큼 GTX 개통이 침체한 경기지역 아파트 시장 활성화까지 끌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 경매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월 26일 고양지방법원 경매 1계에서 진행된 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2단지 휴먼빌레이크펠리스'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66명 몰렸다. 경매 열기가 치솟으면서 매각가격(낙찰가격)도 감정가격 4억 800만 원을 넘긴 4억2800만 원에 결정됐다. 낙찰가율은 105%에 달했다.

이 단지는 GTX A노선 운정역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약 2km 떨어진 곳에 들어서 역세권 단지로 분류된다. 실거래가는 같은 평형 기준으로 지난달 3억9000만~4억 4000만 원 선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수준의 경매 낙찰가격을 고려하면 저렴한 편이 아니지만, 응찰자가 대거 몰린 것이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고양지방법원 경매 2계에선 파주시 야당동 '롯데캐슬파크타운' 전용 84㎡형이 최초 감정가 6억 400만 원의 98% 수준인 5억9199만 원에 낙찰됐다. 해당 경매 역시 응찰자가 30명이나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GTX 대곡역 예정지 주변 단지도 경매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26일 고양지법 경매 1계에서 진행된 고양시 덕양구 '내안애양우' 전용 84㎡ 경매

GTX A노선 역세권 단지 경매				
단지	주소	낙찰가 (원)	낙찰가율 (%)	응찰자 (명)
한빛마을2단지 휴먼빌레이크펠리스	경기 파주시 야당동	4억2800만	105	66
롯데캐슬파크타운	경기 파주시 야당동	5억9199만	98	30
내안애양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4억2078만	94	23

※ 출처: 지지옥션

에도 응찰자 23명이 몰렸고,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94% 수준으로 낙찰가는 4억 2078만 원에 결정됐다. 이 단지 역시 GTX A노선 대곡역 예정지와 직선으로 불과 600m 떨어진 곳이다.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11월 기록한 4억8000만 원 수준으로 GTX 호재를 노린 수요가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최근 경기지역에선 GTX A노선 추가 개통 예정지를 중심으로 경매 열기가 뜨겁다. 이미 매매시장에선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추가 역 개통 예정지는 경기지역 전체의 내림세와 달리 반등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경기 지역에서는 고양 덕양구(0.11%)와 용인 처인구(0.09%)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다. 모두 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으로 특히, 고양 덕양구는 대곡역과 창릉역 두 개의 GTX 역이 지나는 대표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영향으로 고양 덕양구는 25일 기준으로 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이 기간 경기 전체 아파트값은 -0.06%로 전주 대비 낙폭을 키운 것과 정반대다.

앞으로 GTX A노선 추가 개통이 예정된 만큼 경기지역 내 개통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경매시장부터 더 달아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GTX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 삼성역을 포함한 GTX A노선 모든 구간은 2028년에 개통한다.

부동산 전문가는 GTX 수혜 지역을 눈여겨보되 시기와 부동산 유형을 잘 골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GTX A노선 연결을 앞둔 파주 운정역 일대는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되면서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다만, 대곡역과 창릉역은 조성까지 시간이 걸릴 예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권의 경우 GTX 연결로 서울 등 도심 쏠림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경매시장에선 상가보다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다시 여는 청약홈...4월 봄 분양 ‘기지개’

청약홈 개편으로 3주간 개점휴업에 돌입했던 분양시장이 영업 재개를 위한 채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그간 밀렸던 분양 물량이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 청약제도를 크게 개정하면서 아끼던 청약통장을 사용하려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4월 5일 특별공급을 진행하는 ‘e편한세상 서대선역 센트럴’을 시작으로 청약접수를 재개한다. 먼저 분양가 수가 많은 대형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낼 예정이다. 부동산인포가 집계한 4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28개 단지 총 3만690가구(일반분양 2만4700여가구)다. 이 중 10대 건설사들은 1만 6550여 가구를 공급한다.

중견사들도 분양에 나선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4월에는 총 15개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7605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098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분양시장이 어려워 분양 시기를 저울질 하던 주택건설협회 소속 중견건설사들도 미뤄둔 물량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 “3월

전국 28개 단지 3만690가구
일반분양이 2만4700여가구
청약홈 개편 밀린 단지 이월
청약제 변경 수요자 몰릴 듯

청약홈 개편으로 분양 시기가 밀린 단지들이 다수 있는데, 해당 물량이 4월로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분양 물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롯데건설이다. 롯데건설은 수도권과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약 7200여 가구의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인천 계양구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를 공급한다. 3블록엔 20개동 1단지(1964가구), 4블록엔 10개동 2단지(1089가구)가 조성된다. 경기도 광명뉴타운 9R 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주요 단지다. 총 1509가구(일반분양 53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한화건설 또한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을 통해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를 내놓는다. 37개동, 3214가구 규모로 일반분양은 1192가구가 풀린다.

서울에선 DL이앤씨가 성내5구역

재개발을 통해 ‘그란츠리버파크’ 주상복합 단지를 선보인다. 최고 42층, 407가구(일반분양 327가구) 규모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은 영등포뉴타운 1-13구역을 재개발한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위브’를 내놓는다.

대방건설은 2512가구 규모의 경기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제’를, 우미건설은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 구역에 1200가구(일반분양 831가구) 규모의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선된 청약 제도를 활용하려는 예비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청약단지부터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허용, 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등 ‘결혼 패널티’로 꼽히던 규제를 대거 풀 바 있다.

권 팀장은 “4월 청약단지들은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기존에는 중복청약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손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다만 두루두루 모든 단지가 늘기 보단 입지가 좋고 편한 단지들에 좀 더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 “아직 이르다”는 전문가

주택 공급이 줄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금리 인하가 이뤄져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대출 규제 강화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만들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주택공급 감소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2월 주택 인허가는 2만2912가구로 전월보다 11.2%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2월까지 4만8722가구에 대해 인허가가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줄었다. 주택 착공도 2월 1만 1094가구로 전월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 2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8916가구로 전월 대비 18.7%, 착공은 3510가구로 전월 대비 72.2%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의 내림세가 멈춘 것도 바닥론의 근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올랐다. 지난해 11월 20일(0.03%) 이후 18주 만에 오른 것이다.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도 반등 기대감을 만드는 배경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상승이 완화되면서 고용과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으며 금리가 최고치에 와 있다는 생

각이 든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반등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에 집값이 떨어졌던 것은 큰 폭의 인상이 있었고 비교적 단기간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연준의 금리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부동산 시장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다소 내려가더라도 정부의 대출 규제가 빽빽해 주택 구매 비용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이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으로 예외적인 상황일 뿐 일반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서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오르기는 했으나 아직 기준치보다 낮고, 시장의 선행지표 성격을 띠는 법원 경매 물건도 넘쳐난다”고 강조했다.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7.5를 기록했고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은 2862개로 전년 동기보다 70.6% 증가했다.

허지은 기자 hje@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90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롯데캐슬’ 공공지원 민간임대 1곳에서 만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를 발표하는 곳은 3개 단지다. 1일에는 인천 중구 ‘영종유승한내들스카이2차(민간임대)’가 당첨자를 알린다. 3일에는 전북 김제시 ‘김제지평선(행복주택)’, 전북 익산시 ‘익산제3일반산단(행복주택)’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권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6곳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4/2(화)	접수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롯데캐슬(민간임대)
4/5(금)	오픈	부산	금정구	남산동	e편한세상금정메종카운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우범어아이파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하늘채하이메르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광주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1BL, 2-1BL)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2-2BL)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A2, A4)

(주1)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오픈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2)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의 오픈은 각각 1건으로 처리함 ※자료:부동산R114

북주택)’이 당첨자를 발표한다.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총 6곳이다. 광주 서구 금호동 ‘중앙공원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자이포레나퍼스티체’, 전남 여수시 소라면 ‘힐스테이트죽림더프라우드’ 등이 5일 견본주택을 연다.

교육부 ‘0~2세 교육과정 개발’ 착수…유보통합 가속

현행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적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영유아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해 상향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월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2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0~2세 교육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행 누리과정을 적

영유아 돌봄 공백 해소 위해
지난달 27일 정책연구 용역

통합교사 자격증 취득 기준
전문대 2~3년→4년 과정 상향
상반기 유보통합 모델안 발표

용받지 않는 0~2세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됐다. 이에 정부는 유아교육·보육기관

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하고 2025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0~5세 모든 영유아 대상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위한 ‘0~5세 교육과정 마련’ 과정으로 현재 부재한 0~2세 교육과정을 개발해 현장의 교육공백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후 ‘3~5세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0~2세와 3~5세 연구간의 협업을 통해 총론의 내용은 동일하게 개정할 예정이다.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통합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현재 전문대 2~3년에서 4년 과정으로 전환·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같은날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교사 양성교육과정 개편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유치원교원 자격증은 4년제 대학 또는 3년제 전문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직 이수 또는 교육대학원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는 전문대(2~3년)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학점이

수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 교원자격제도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교원자격검정령과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어려운 이에게 희망을

31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주님 부활대축일 낫미사’에서 정순택(가운데) 대주교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의대진학 쉬운 곳은 강원 가장 어려운 지역 부울경

종로학원 ‘非수도권 진학 상황’
지역 학생수 대비 의대 정원
강원·충청·제주順 유리 분석

정부가 최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정한 가운데 지역인재 선발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하기 가장 유리한 곳은 강원지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이 31일 내놓은 ‘비수도권 의약계열 학년별 진학 유풍리 상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 6개 권역(부울경·대구경북·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내 학년별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지역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이번 의대 정원 배분에 따라 권역 내 의대 4곳(강원대·연세대 원주·한림대·가톨릭관동대)의 정원이 432명(기존 267명)으로 늘었다. 의대 모집정원은 올해 고3의 경우 강원지역이 전체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이 3.68%로 가장 높았다.

충청권 또한 7개 의대(순천향대·단국대 천안·충북대·건국대 충주·충남대·건양대·을지대)가 970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강원권보다는 낮지만 의대 정원은 2.0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제주 지역도 제주

대에서 100명이 늘어난다. 전체 학생 수 대비 의대 정원은 1.64% 차지한다. 이어 △대구·경북 1.62% △호남 1.60% △부산·울산·경남 1.36% 순이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 의대가 소재한 권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3년 동안 재학해야 지원할 수 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고교 6년을 해당 지역에서 나와야 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이를 감안해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학생 수 대비 의대 입학정원을 계산해도 강원권이 3.40%~3.91%로 가장 높았다.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등 의약계열로 확대했을 경우에도 강원 지역이 고교 학년 모두 진학에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부울경처럼 지역 의대에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 의대에 들어가기 쉬운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이 60%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경우,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상위권 대학 아공계 재학생 중 반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어린 X가 뭘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 의뢰인·상대방 폭언에 ‘극한직업’ 된 변호사

서초동 MSG

스트레스에 분노 화살 돌리며
고소 당하고 항의·협박 받아
심한 막말에 트라우마 호소도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괴롭히는 일은 서초동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평생 한 번 겪을까 하는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분노의 화살을 변호사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소송 상대방은 변호사가 서면을 낼 때마다 ‘왜 거짓말을 지어내느냐’며 전화로 따져 물었고, 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해자를 합의금과 비교하며 ‘왜 이것밖에 못 받느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사건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도 자주 걸려온다. 대다수는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다. 설령 사건 의뢰인의 부모나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



호사는 비밀유지의무상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다.

A 변호사는 한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여성 측 변호를 맡았다. 남성의 외도로 인해 시작된 소송이었는데, A 변호사가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조정을 성사시켜 이혼 소송도 취하하게끔 했다. 그런데 조정 다음날 상간녀의 어머니가 A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와 “내 딸 인생은 어떻게 할 거냐”라며 항의를 한 일도 있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인 B 변호사는 종종 분쟁 소송을 맡게 됐다. 어느 날 재판이 끝난 뒤 B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는데, 유학자복을 입은 중증원 수십명이 변호사를 둘러싸더니 “어린 X가 뭘 아냐”며 상대방질을 했다. 그렇게 이어진 항의에 B 변호사는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털어 놓았다.

C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한참을 시달렸다. 전과 경력이 많은 그는 변호사에게 “당신이 그러고도 애미냐. 당신의 두 팔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C 변호사는 결국 자녀들을 먼 외국으로 유학 보낼 수밖에 없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는 많은 변호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2022년 6월 9일 대구지방법원 인근 한 변호사 사무실에 50대 남성이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남성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살인을 계획했다. 이 사고로 이남성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변호사들 사이에는 목시적 수칙이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소송 상대방 의뢰인의 말에 응대하지 않는 것이다. 원한을 품은 상대방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간의 갈등과 감정적인 부분도 다뤄야 한다”며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뢰인 뿐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abc123@

대법 “과세 하자 있어도 오인할 사정 있다면 무효 아냐”

원고 일부 승소 2심 판결 뒤집어
“미진함 있지만 명백한 하자 아냐”

과세당국이 과세 대상을 잘못 분류해 세금을 부과했다든 사실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지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인 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 애월읍에 있는 토지를 소유해 왔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한화는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 1월부터 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했다.

제주시는 이 토지를 종전과 같이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귀속재산세와 지방교육세 7000여만 원을 부과했고,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3억여 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됐는데도 제주시와 과세당국이 잘못 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법상 목장용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지방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때 세율 0.07%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0.4~0.5%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 대상인 토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조사결정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 볼 수는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김이현 기자 spes@

Class가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제주의 바람을 전기로…비바람 있는 날이 좋은 날”

이성호 탐라해상풍력 본부장

2017년 준공…50만MWh 생산
제주도 31만 가구가 반년 쓸 양
“사업 초기 걱정 많던 주민들도
지역발전 도움된다고 생각바꿔”

“제주 날씨가 이렇게 비바람 치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날은 발전이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니 여기 제주에 온 후로는 비바람이 있는 날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지난달 28일 제주 서부 환경면 바닷가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운영 상황실에서 만난 이성호 본부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력 발전기의 날개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해수면 위로는 10기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해안선과 평행하게 한 줄로 늘어 있었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로 거세게 이르는 바람을 안고 발전기들은 지름이 90m에 달하는 거대한 바람개비, ‘블레이드’를 부지런히 돌리고 있었다.

블레이드가 돌아 생긴 회전 에너지는 풍력발전기 꼭대기에 달린 네모난 상자 속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든다. 10기의 발전기가 각각 두산에너지빌리티의 3메가와트(MW) 설비용량 터빈을 달았다. 전기 생산에 가장 효율적인 초속 12.5m의 바람을 맞으면 10대를 합쳐 시간당 최대 30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성호 탐라해상풍력발전 본부장이 지난달 28일 제주시 환경면에 있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종합상황실에서 취재진에게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시 환경면 두모리·금등리의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16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7년 준공된 이 단지가 최근까지 실제 만든 전기의 양은 총 50만MWh. 제주 전체 31만 가구가 약 반년 동안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오롯이 ‘제주의바람’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운영 중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 시설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이 본부장은 “첫 상업용 풍력단지의 건설로 대한민국이 해상풍력발전 시대를 개막했다”며 “설계, 제작, 설치까지 100% 국산 기술을 적용해 해상풍력 산업화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전에 없던 ‘바다 위 발전소’를 처음으로 짓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후보지인 환경면 두모리와 금등리의 해녀와 어부 등 바다에 삶을 기대 사는 주민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걱정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 초기에는 주민들의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설명회를 열고 설득을 해도 믿어

주지 않았지만, 자주 접촉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차츰 신뢰관계가 쌓이고 주민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 본부장은 “준공 후 약 7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이제는 주민 상당수가 해상풍력 발전소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수면 아래 해저에 단단히 박아 풍력발전기의 기둥을 떠받치는 받침대인 ‘자켓 구조물’이 인공 암초 역할을 하면서 우려했던 어족 자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발전단지 측으로부터 보상금 형태의 경제적 보상도 일부 받아 마을 공동 발전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육상풍력발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제주 애월읍에 4.2MW짜리 5기로 구성된 호기당 기준 제주 최대 육상풍력의 메카인 ‘어음풍력발전단지’도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했다. 어음풍력발전단지는 약 5개월간 1만8000MWh가량의 누적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동률 95%, 이용률 32%를 보이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탐라해상풍력발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내에서도 해상풍력발전의 경쟁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서남해안 지역 등 풍력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으로서 대규모 해상풍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에너지안보 확보, 탄소국경세 대응, RE100 달성 등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제주·노승길 기자 noga813@

롯데마트, 창립기념일 맞아
파트너사에 동반성장 감사장



롯데마트가 4월 1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우수 파트너사를 선정, 선물을 전달하는 등 동반성장 의미를 되새겼다.

3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파트너사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했다. 롯데마트는 2021년부터 매년 우수 파트너사에게 선물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우수파트너사는 중소기업협력사대상 ESG 컨설팅 참여 여부, 거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올해는 150여 개 파트너사를 선정, 파트너사 대표 및 임직원 300여 명에게 감사 선물을 지급했다. 롯데마트는 감사 선물에 롯데마트 대표이사 명의의 감사장과 프랑스 와인 ‘뵘에르 아마디유 그랑 로마네 지궁다스’를 담았다.

특히 감사장에는 ‘함께갈 때 멀리갈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동행주원(同行走遠)’을 인용,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동반성장의 의미를 되새겼다.

진주태 롯데마트·슈퍼준법지원본부장은 “롯데마트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파트너사의 지지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롯데마트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사진제공 롯데마트

LG전자, ESG 대학생 아카데미 10기 발대식

22대1 경쟁률…32명 선발

LG전자는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학생 아카데미 10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생 32명이 참석했다.

ESG 아카데미는 대학생을 ESG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2014년부터 LG전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 약 300명의 ESG 인재를 배출했다.

약 5개월간 LG전자 ESG 실무진의 멘토링과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ESG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기업의 ESG 활동을 배

운다.

매달 각 ESG 분야에 관한 미션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한다. 환경 문제 해소 방안, 사회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방안,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 등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선 활동에서는 노인 이동권, 쓰레기 분리배출, 미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사회현안을 개선할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제안했다.

LG전자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중 노약자·저시력자를 위한 접근성 제고 방안을 고안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ESG 영상 콘텐츠를 만든



LG전자 ESG 대학생 아카데미 10기 구성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다. 각 활동을 자유롭게 다룬 영상 콘텐츠를 아카데미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우수하게 활동한 참가자에게는 LG전자 신입사원 지원 시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상금이나 해외 탐방 기회도 준다.

10기 ESG 대학생 아카데미로 선발된 조한희 씨는 “LG전자의 ‘점자 스티커’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부드러운 개입으로 모두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미래 인재로 거듭나고 싶다”며 “ESG 활동을 기획부터 실천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부음

‘탈원전 재고 청원’ 채성기 前원자력안전연구소장

1959년 서울대에 입학한 원자력공학과(현 원자핵공학과) 1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청원에 참가했던 채성기 전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센터장이 30일 오전 8시 43분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4세.

1940년생인 고인은 경기고를 졸업한 뒤 1959년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기로 들어갔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를 거쳐 1978년부터 한국원



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안전연구부장, 다목적연구로건설본부장, 원자력연구개발단장,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소장, 하나로센터장을 역임했다.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기생 20명 중 15명이 ‘탈원전 재고를 바라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회 졸업생들의 청원’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유족은 부인 백용희씨와 사이에 1남 2녀로 채정민·종석(삼성전자 MX사업부 수석연구원)·정원(신한은행 부지점장)씨와 사위 허수돌(하이넷매거진 이사)·박효민(네이버 광고상품기획 리더)씨, 며느리 권오현(라인파이낸셜 경영기획실장)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2일 오전 9시, 02-2258-5925

▲이종길(전 동부건설 부회장) 씨 별세 = 31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30분, 063-250-1444

▲정장섭(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씨 별세, 박옥원 씨 남편상, 정국식(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하나·성훈 씨 부친상, 신형식(LG전자 책임연구원) 씨 장인상, 정희경 씨 시부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일 오전 6시, 02-3410-3153

▲김창길 씨 별세, 김성태(쌍방울그룹 전 회장) 씨 부친상 = 31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02-2072-2020

▲강병훈(이화학원 명예이사장·남산교회 원로목사) 씨 별세, 강혜경·혜영·신환·혜진 씨 부친상, 이성복·이인석 씨 장인상

=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 02-2227-7580

▲김두례 씨 별세, 차현태(사업)·현국(변호사)·현준(충북 음성중앙병원장)·현희(서울 원효초등학교 교사) 씨 모친상, 임채익(전 KOTRA 실장) 씨 장모상 = 30일, 광주 VIP장례타운 201호, 발인 2일 오전 8시 30분, 062-521-4444

▲이춘자 씨 별세, 권태형(경향신문 광고국 영업총괄국장)·태훈(큰산인디컴부장) 씨 모친상, 전지은·박미숙 씨 시모상 = 30일,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40분, 02-2227-7569

▲박정순 씨 별세, 윤혜경(경인일보 경제부 기자) 씨 모친상 = 31일, 구미강동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054-473-9650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 급 전보 △규제총괄정책관 김달원 ◇국장 급 승진 △안전환경정책관 이용석 △청년정책협력관 김준민 △디지털소통비서관 박상철 ◇과장급 전보 △의정과장 이병호 △교육정책과장 조승희 △고용정책과장 한동희 △산업통상정책과장 이승규 △교통정책과장 김명진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양찬희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우형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평가과장 손선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안영훈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백대현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이강용 △디지털협력담당관 허은영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판로정책과장 김현동 ◇과장급 전보 △기업금융과장 조성우

◆기상청 ◇3급 승진 △대변인 김희철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조남산 ◇4급 승진 △예보국 예보정책과 김강하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임장호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김성우 ◇수석전문관 승진 △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장 이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승진 △김동희 근로기준정책팀장 △이웅빈 노사협력팀장

◆우리은행 ◇승진 <집행부행장> △외환그룹 곽훈석 ◇전보 <집행부행장> △글로벌그룹 류형진 △HR그룹(조사업) 윤석모 <기업영업본부장> △본점 1기업영업본부 겸 본점 2기업영업본부 조병산

김정례 칼럼



칼럼니스트·前 부산고대 교수

총선이 불과 9일 남은 현재, 그간 주요 정당 내의 파열음과 막말 그리고 도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인물에 달린 듯하다.

구도 측면에서 여야는 모두 심판론을 제시한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은 유권자들이 선택 기준을 희석하는 요인이 되어 버렸다. 정책 측면에서도 여야는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여당의 실정이며,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각기 주장하여 이 또한 심판론으로 회귀해 버렸다. 게다가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묻지 마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생색내기 공약만으로 민생 문제가 근

원적으로 해결될 듯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인물 측면에서 유권자의 선택 기준은 분명하다.

첫째, 후보자 자신에 충실함이다. 19세기 말 우리와 중국에 비하여 일본이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역할분점론이다. 동북아 3국이 모두 유교 질서에 뿌리를 둔 신분 사회였지만, 일본은 신분을 떠나 각기 종사하는 직업을 존중하는 풍속이 강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서양 문물을 자국의 현실에 맞게 소화해 내어 근대화를 조속하게 이룰 수 있었다. 반면 우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장인정신을 경시하고 정치권력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후진성을 자초하였다.

작금의 현실은 아직도 역할분점론의 장점을 외면하면서 사회 전 분야가 마치 정치권력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각계의 ‘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각 정당은 제 영역의 전문가를 입문시켜 왔다. 물론 어떤 직업인이든 참정권과 피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지만, 각 분야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의 종착점이 정치권이어야 한다는 풍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점에서 정치권의 강력한 권유를 뿌리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국민에게 보여준 이국종·국군대전병원장과 유명 요리연구가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백종원 대표는 웬만한 정치인을 능가하는 진정한 애국자다.

그렇다면 자신의 직업적 소명 의식에 따른 이기주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득이 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선량의 잣대를 후보들의 자기 충실함에 서 찾아야 한다. 국민을 위함내 하면서 민의를 전도(顛倒)하는 역설(臆說)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정

여야 상반된 심판론, 선택지 희석

모범 실천한 ‘인물’이 기준 선명해

내로남불 직시하고 위선 걸러내야

략과 당파적 계산을 ‘인권’과 ‘민주적 대의’로 포장하는 정치인의 위선적 이타주의를 유권자들은 엄격하게 심판해야 한다.

둘째, 자기 모범의 실천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내로남불’이다. 이미 유명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일부 수뇌부와 법관들이 저지른 내로남불 행태가 추악하여 젊은이들에게 전파될까 우려다.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

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 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입시를 강령으로 내세우거나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의 겹투기도 주목받고 있다. 설상가상 자신의 결정적 결함을 오히려 상대방 결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후안무치로 내로남불은 확대 재생산된다.

세계적 스타 손흥민 선수의 성공은 부친의 엄격한 교육방식에 기인한다. 손웅정 감독은 아들의 훈련에 자신이 똑같이 참여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출중한 스타를 배출한 실천적 인물이다. 손흥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의 축구 기량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몸소 실천으로 보여준 결과로 획득한 동료애와 겸손함 때문이다. 유권자가 국민에게 모범이 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자기애와 모범은 개인 차원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해당 분야와 국가 발전에 크게 공헌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자기애를 지닌 사람이 자신이 몸담은 국가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한미동맹 파기, 천안함 망언, 종북사상, 중국에 대한 굴종발언 등으로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기(國基)를 훼손하는 후보는 선량의 최소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유권자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들녘경영체’, 쌀농사의 미래 연다

사과값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난해 사과 수확량이 30%가량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사과 생산이 줄어든 것은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고령화된 농업인이 폐농하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은 노동력과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쌀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논은 과수나 밭농사에 비해 생산 기반이 정비돼 있고 농기계가 대부분의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일할 수 있다. 더욱이 쌀은 국민들의 주식으로 다른 작물에 비해 판로 확보가 용이해 고령의 농업인도 선뜻 쌀농사를 내려놓지 않는다. 이는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작년부터 쌀 외에 식량자급에 도움이 되는 작물을 심는 경우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지만 논에 다른 작물재배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고령화와 기후위기로 영농환경 악화

그중 하나가 들판 단위로 공동영농을 함으로써 규모화된 농장의 계획영농과 전문경영으로 생산비를 줄이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장 힘든 농작업에 시달리는 고령 농업인의 노고를 덜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술이나 자본, 판로 부족으로 타 작물 재배를 꺼리는 개별농가의 걱정을 들녘경영체가 해소해 보다 쉽게 작목전환에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해마다 겪는 폭목 쏠림에 따른 수급 조절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기후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들녘 중심의 공동영농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규모 영농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이미 15년 전부터 쌀 농사를 중심으로 들녘경영체를 육성해 왔다. 들녘경영체란 50ha 이상의 집단화한 들녘의 농작업을 공동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전국적으로 617개 경영체가 논 면적의 14.1%인 10만여ha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쌀 재배 들녘경영체는 개별 영농에 비해 생산비를 14.5%나 절감한다고 한

정책발언대

이동필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다. 최근에는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들녘경영체에 대한 재배기술 컨설팅, 공동작업 시설·장비, 그리고 배수개선과 선별·가공·유통시설 등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로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들녘 별 공동영농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의 나누리농법인은 420명 회원들의 논지 1450ha에 벼 732ha와 콩 497ha, 밀 66ha 등을 공동으로 생산하는데, 이렇게 생산한 콩의 일부는 마을에서 직접 매주와 된장, 간장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들 들녘경영체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술과 경영능력은 물론 시설과 장비,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할 경우 고령으로 더 이상 농작업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제와 일관작업 등으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규 취농자들에게 농작업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영농 가속화해 경영효율성 제고

농업구조개선을 정책목표로 정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세고령농이 쌀에 편중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과산업이 알려 준 위기경보는 우리 농업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농지를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이야말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핵심이다.

혹여나 농업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고령 농과 은퇴농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中 전기차 공세에 떠는 한국시장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비야디(BYD)가 국내 시장 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BYD가 일찍부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가 국내 시장에 들어올 모델 중 하나로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돌핀’이 거론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무서운 모델이다. BYD는 지난달 2024년형 돌핀을 중국 내수 시장에 출시하며 시작 가격을 9만9800위안(한화약 1850만 원)으로 설정했다. 작년 모델을 보면 돌핀은 1회 충전 시 427km(유럽 WLTP, 콤퍼트 모드 기준)를 주행할 만큼 실용성도 갖췄다. 중국 브랜드 대부분이 공격적인 가격 중심의 시장 전략을 구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 이 모델이 들어온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2024년형 돌핀이 국내에 들어오면 관세 등으로 일부 가격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약 2000만 원 중반에서 3000만 원 초반의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비슷한 급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현재 4352만 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현행 보조금 체계에서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한 코나 일렉트릭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노트북 너머

이민재

산업부 기자



탑재한 돌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점을 고려해도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날 전망이다. 그나마 현대차·기아는 각각 캐스퍼 일렉트릭, EV3-EV4 등 중저가 전기차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국 브랜드 진출에 어느 정도 대응 여력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다만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자동차와 아직 전기차 모델이 부족한 KG 모빌리티는 전기차 시장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완성차 업계의 더 적극적인 중저가형 전기차 출시가 필요하다. 값싼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을 현대차·기아에만 오롯이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업체의 적극적인 신차 개발은 물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등도 절실하다.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인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놓쳐선 안 된다. 2mj@

이투데이, 말투데이

☆ 일두 정여창(鄭汝昌) 명언

“나는 자질과 능력이 남보다 못한 사람이다.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해 독서하지 않으면 틈틈한 한 효과도 얻기 힘들다.” 조선 전기 성리학의 대가다. 사초에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고하지 않았다고 파직되어 유배 간 무오사화 때 ‘용학주소(庸學註疏)’ 등 그의 저서는 부인이 태워 없앴다. 그가 죽은 뒤에는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450~1504.

☆ 고사성어 / 등화가친(燈火可親)

‘등불을 가까이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학문을 탐구하기에 좋다는 뜻이다. 자식 교육에 관심이 큰 한유(韓愈)가 아들의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지은 시 ‘부독서성남시(符讀書城南詩)’ 중의 한 구절이다. “때

는 가을이 되어, 장마도 마침내 개고, 서늘한 바람은 마을에 가득하다. 이제 등불도 가까이할 수 있으니 [燈火稍可親] 책을 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 시사상식 /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흔히 쓰는 약어는 IEF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세계 각국 경제활동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다. 각국의 재정 상태, 정부의 금융규제정책, 무역 정책 등 10개 분야를 최하 1.0점, 최고 5.0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유가 높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2019년 72.3점으로 전년보다 1.5점 하락했다. 평가대상 180개국 중 29위다. 지수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미국은 12위, 중국은 100위, 북한은 180위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정부의 정책과제 중에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는 우수한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다. 그중에서 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일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과 병원, 바이오테크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탄생·성장해 왔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약 20여 개의 대형병원과 MIT, 하버드대, 보스턴대 등 유수의 연구·교육기관과 1000여 개의 바이오테크 기업이 들어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한 것은 병원, 대학,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기반으로 민간이 스스로 운영하되, 지자체 및 연방 정부의 막대한 투자 지원을 통해 협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78년 하버드와 MIT 출신의 과학자들이 공동창업한 바이오젠(Biogen)사는 앵커기업의 역할을 하였다. 바이오젠은 인류의 질병 난제인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렘비’를 개발한 회사인데, 이는 세계 최초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이다.

이처럼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민간기업 주도로 시작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시, 주 정부), 연방 정부, 대학의 협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바이오 관련 분야 고급 인력의 고용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용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산업의 영업, 경영, 생산, 연구개발 등을 모두 포함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적화된 모델이 얼마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 발전적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바이오산업도 마찬가지다. 보스턴과 같이 특화된 클러스터가 글로벌 수준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산업의 특수성 때문일 것이다. 바이오산업은 혁신 단계가 다(多)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복잡하다.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규모와 범위의 경

시론

정 윤 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연세대 겸임교수



제가 생성되어 전문화된 노동 인력과 생산에 필요한 여러 인자가 집적된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비용이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약 19개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되거나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혁신 바이오클러스터는 해외 선진 사례와 비교할 때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를 공모하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스턴바이오클러스터의 사례와 그간 국내 바이오클러스터간에는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실제로 운영방식과 클러스터 내에서의 활동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성공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답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바이오클러스터가 글로벌 스탠더드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이 활발할 수 있는가. 둘째, 정부 주도형에서 벗어나 민간 스스로가 단지 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바이오클러스터가 세계 등 제도와 정부 여건에서 싱가포르 및 중국 상하이와 비교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 투자자(VC), 액셀러레이터 등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지는 위 두 가지 답에 달려 있다. 보스턴의 ‘바이오젠’과 같이 클러스터 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신약 개발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앵커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

노무, 특!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업경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분야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은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서 신입사원을 맞았다.

하지만 신입공채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이직, 수시 채용, 경력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다른 관리에 비해 확보(채용) 절차에 기업들이 들이는 리소스가 줄어들고 있다. 채용에 투입하는 리소스가 줄면서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채용공고와 실제 조건의 불일치이다. 수시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람에 대한 확신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기에 바로 정규직 채용보다는 3개월~1년의 기간을 두고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키는 비율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채용 공고는 늘 정규직이기 때문에(실제 큰 결격이 없는 한 전환시키긴 한다) 회사는 별 생각하지 않고 전과 같은 공고를 올리지만, 그 자체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면접도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면접관 교육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되는 질문(혼인 여부, 아이계획, 고향질문 등)을 했다가 고발당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 시 반드시 법에서 금지하는 질문을 숙지해야 한다.

채용의 취소 역시 법은 해고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채용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수시 채용 기조라 하더라도 채용은 인사관리의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경영행위 중 하나이고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도 많다. 채용과정의 실수로 많은 피해를 입는 기업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신동현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9년 만에 ‘무더기 순손실’… 저축銀에 선제 대응을

사설

국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79개 저축은행 중 41곳에서 5559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3회계연도에 50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처음이다. 한 저축은행은 1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 건전성 지표가 양호할 까닭이 없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보다 3.14%포인트(p) 올랐다.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5.01%로 전년 말(4.74%) 대비 0.27%p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대출은 2.90%에서 8.02%로 5.12%p나 뛰었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비율은 7.72%로 3.64%p 상승했다.

연체율이 23.36%인 곳을 포함해 10% 이상인 곳이 15곳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30%가 넘는 곳도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지난해 손실 규모, 연체율 상황은 2011년과 비슷하거나 더 좋지 않다. 부동산 PF가 근본 배경이란 점도 흡사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업권의 수신(말잔)은 107조1491억 원이다. 2011년 63조100억 원보다 70%가량 늘었다. 만에 하나, 거품이 터지면 피해 규모는 12년 전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예·적금 금리를 앞세우는 수신이 유일한 자금원이다.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서민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마련이다. 선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차고 넘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고위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 시 자산건전성 하락,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최근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 우발부채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 공산이 농후하다. 기업 부채도 심각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무 당국은 모든 증상을 제 손금처럼 들여다보면서 저축은행 정상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성찰해야 한다. 전방위적인 대비에 나서려면 다른 길은 없다.

당국은 PF 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위기설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장담보다 효과적인 것은 시장과 교감하는 합리적 행동이다. PF 리스크 관리는 옥석 가리기가 필수적이다. 고강도 구조조정 없는 만기연장 중심의 금융 지원은 외려 화를 키우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시장 원리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적절한 개입과 관여로 상황을 통제할 것이란 믿음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 시장이 믿지 못하면 백악이 무효다.

저축은행만이 아니다. 한은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2022년 말 18조 원에서 2023년 말 31조 2000억 원으로 73.4% 급증했다. 초대형 폭탄의 심지가 곳곳에서 타들어 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당국은 금융 안정을 지키는 불침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듭 자문해야 한다.

지역의료에 달린 ‘의료개혁’

마감 후

곽 도 흔
정치경제부 차장



서 확인해보라는 말도 흔히 듣는다. 지방 병원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견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지인들의 사례를 보면 그게 맞는 선택이다.

한 지인은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 평소 읍주는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라 선뜻 믿기지 않은 결과였다. 당장 서울 빅5 병원을 예약해 올라갔다. 결론은? 암이 아니었다.

또 다른 지인의 사례는 안타깝다. 웃으면서 병원에 걸어 들어간 어머니가 뇌사 판정을 받은 끝에 2주만에 돌아가셨다.

길에서 넘어져서 근처 지방 국립대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뇌에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누워 있다가 끝내 뇌사 판정을 받은 것이다. 주변에서 의료사고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인은 어쩔 수 없다고 장례를 치렀다. 당장 내 부모님이 아프다면 명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명의는 거의 90% 정도는 빅5 병원에 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지역의료 수준 높일 방안 강구해야

이런 현실을 얘기한 것은 지방 국립대병원에 의사수만 증원해서는 결코 지역의료 강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만 좋아진다고 의사수준이 높아질까. 차라리 서울에서 명의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명의에게 제대로 배운 의사들이 지방에 내려오는 게 낫다.

실제로 최근 명의로 불리는 한 의사가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서울로 몰리던 환자가 분산되고 있다고 한다. 좋은 사례다. 이런 사례가 더 많아지는 게 진정한 의료개혁이 아닐까.

soqood@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Galaxy AI ✨ is here

이젠 더 많은 갤럭시에서.



Galaxy S23 Series

Galaxy Tab S9 | Tab S9+ | Tab S9 Ultra

Galaxy Z Flip5 | Z Fold5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각기기는 별도 판매입니다. 색상은 국가,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탭 S9 FE 모델은 AI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AI 기능은 모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정 AI 기능 사용을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삼성은 AI 기능 결과의 정확성, 완성도, 신뢰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Try Galaxy AI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경험해 보세요

